

少陽人 新定處方の 形成課程에 對한 考察

徐 雄*·宋正模*

A Study About the Formative Process of *So Yang-In*(少陽人)'s prescriptions

Woong, Seo

Dept. of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Woo Suk University, Yiksan, Korea

After studying about the formative process and theory concerning *So -Yang In* (少陽人)'s prescriptions, Some principles were founded.

Those were summarized as follows.

1. *Lee Jae Ma* (李濟馬) established the theory and remedy about the *So Yang In's* diseases, and the formation of *So Yang In's* prescriptions was based on those theories and remedies.
2. As the empirical prescription of *So Yang In's* diseases, ten pre -prescriptions of *Discussion of Cold-Induced Disorder* (傷寒論) and nine of *Won Myung dynasty period* (元明時代) were described in *Dong Eui Su -Se Bo Won* (東醫壽世保元), and I could confirm that the formation of *So Yang In's* prescriptions was based on those empirical prescriptions.
3. The pathological characteristics of empirical prescriptions of *So -Yang In's* diseases in *Discussion of Cold-Induced Disorder* (傷寒論) were completely corresponded with the principle of *So Yang In's* diseases, and we could know that empirical prescriptions of diseases that were the base of *So Yang In's* prescriptions were selected by the principle of *So Yang In's* diseases.

* 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과

4. In the serious cases of *So Yang In's* diseases, *So Yang In's* pre -criptions were mostly made up of *tonifying and nourishing yin medicine* (補陰藥物) that directly refill the damaged *Eum Chung Zi Ki* (陰清之氣).

According to the above results, it could be concluded that *Lee Jae -Ma* (李濟馬) made *So Yang In's* prescriptions with empirical pre scri -ptions that were based on the theory of *So Yang In's* diseases and concluded that *So Yang In's* prescriptions were made up of *tonifying and nourishing yin medicine* (補陰藥物) in the serious cases of diseases.

I. 緒 論

四象醫學은 東武 李濟馬의 獨創的인 四象哲學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四象哲學은 『中庸』을 비롯한 四書의 儒學思想을 바탕으로 形成되었다.¹⁾ 이러한 四象哲學에서 제시하고 있는 世界觀과 人間觀은 그 독특한 方法論과 함께 四象醫學이라는 새로운 韓醫學의 體系를 形成하는 바탕이 된 것이다. 또한 四象醫學은 이러한 四象原理를 바탕으로 既存의 證治醫學의 知識과 病證藥理의 經驗을 흡수하여 治療의 실질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四象處方을 만들어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四象處方은 四象醫學 體系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으로, 四象醫學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四象處方に 관한 研究는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四象處方に 대한 研究의 重要性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에 대한 研究는 趙²⁾의 研究와 四象處方の 處方名에 대해 언급한 金³⁾의 論文등 몇 편이 있을 뿐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趙는 東武哲學이 四元的인 認識體系인 '事心身

物'의 가정하에 출발한 것이므로 四象藥理 또한 事心身物構造의 範疇를 벗어날 수 없다고 하여, 四象方劑를 모두 『東武遺稿』를 바탕으로 事心身物의 四象的 構造로 나누어 說明하였다⁴⁾. 이처럼 四象處方に 대한 研究는 四象醫學의 治療精神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여러 각도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李濟馬의 『東醫壽世保元』에는 各 體質別 病證論의 末尾에 體質別 處方이 整理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各 體質別 病證 經驗設方으로 『傷寒論』處方과 唐宋元明時代의 處方 그리고, 體質別 新定處方이 제시되어 있다(但, 太陽人의 경우에는 病證 經驗設方은 없고 12가지 單方藥物과 太陽人 新定處方 2가지만 나와 있다). 著者는 이들 處方을 各 體質病證과 聯關지어 살펴보고 處方 相互間의 關係와 構成藥物에 대한 分析을 통하여 四象醫學의 方劑精神과 治療精神을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 바, 그 研究의 일환으로 우선 少陽人 處方に 대한 考察을 시작하고자 하였다.

『東醫壽世保元』 少陽人篇 處方部分에는 少陽人

1. 洪淳用, 李乙浩 : 四象醫學原論, 서울, 행림출판, p.6, 1992.
2. 조황성 : 四象方劑構成의 分析研究, 四象醫學會誌 7(2) : 21-44, 1995.
3. 金振榮 : 東醫壽世保元方名論, 四象醫學會誌 7(2) : 45-49, 1995.
4. 조황성 : 前掲書, pp. 21-44.

新定處方 17種과 少陽人 病證 經驗設方으로 『傷寒論』處方 10種과 元明時代處方 9種이 서술되어 있다. 한편, 少陽人病證論에는 李濟馬가 少陽人新定處方を 만들 때 『傷寒論』과 元明時代醫家들의 書籍에서 病證 및 處方들을 參考하였음을 직접 언급하고 있어서 少陽人 新定處方の 形成課程이 少陽人病證 經驗設方들과 既存醫家들의 醫案 및 處方들과 聯關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바꿔 말하자면 이는 前時代의 醫學觀이 四象醫學에 반영되는 모습이자 少陽人 新定處方 形成過程의 실마리를 提供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著者는 李濟馬의 少陽人 17種 新定處方과 『傷寒論』, 元明時代의 少陽人 病證 經驗設方 및 醫案을 살펴봄으로써, 少陽人 新定處方の 形成過程과 形成原理에 대해 약간의 知見을 얻었기에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

II. 研究目的 및 方法

少陽人處方の 形成過程 및 形成原理에 대한 考察을 통해 四象處方の 方劑精神과 治療精神을 이해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살펴보았다.

1) 少陽人 病證 分類에 따라서 少陽人 新定處方과, 少陽人病證 經驗設方中 『傷寒論』處方, 元明時代處方を 연계하여 考察하였다.

2) 1)에서 나온 分類중 『傷寒論』에 나온 少陽人病證 經驗設方の 使用條文을 조사하여 그 病理의 特性을 綜合하고 少陽人 病證의 原理와 聯關性을 조사하여 少陽人 新定處方の 토대가 되는 處方들이 少陽人의 病證原理에 따라 선택된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였다.

3) 『傷寒論』과 元明時代의 少陽人病證 經驗設方과 少陽人 新定處方の 處方構成을 조사하여 이 處方들 사이의 聯關性을 조사하였다.

4) 『東醫壽世保元』의 醫案을 중심으로한 文獻考察을 통해 직접 少陽人新定處方の 形成過程을 시사하고 있는 부분들을 整理 분석하였다.

5) 少陽人 病證의 輕重 變化에 따른 少陽人 新定處方の 內容 變化를 조사하여 少陽人 處方の 形成過程 및 形成原理에 관하여 보다 立體的인 方法으로 考察하였다.

III. 本 論

1. 病證區分에 따른 少陽人 新定處方 및 經驗設方の 分類

少陽人 病證은 表病證인 脾受寒表寒證과 裏病證인 胃受熱裏熱病證으로 나뉘며 表病證은 크게 少陽傷風證 亡陰證으로, 裏病證은 胸膈熱證과 陰虛午熱證으로 나뉘어 진다⁵⁾. 이에 대한 少陽人處方は 經驗設方으로 『傷寒論』處方が 10種, 元明時代處方が 9種이 있고, 李濟馬의 新定處方が 17種이 있는데 이는 少陽人 病證論의 마지막 부분에 整理되어 있다⁶⁾.

그 內容을 살펴보면 『傷寒論』處方으로 白虎湯·猪湯·五散·小柴胡湯·大青龍湯·桂婢各半湯·小陷胸湯·大陷胸湯·十棗湯·腎氣丸이 있고, 元明時代處方으로는 涼膈散·黃連猪丸·六味地黃湯·生熟地黃飲·導赤湯·荊防敗毒散·肥兒丸·消毒飲·水銀勳鼻方이 있으며, 新定處方으로는 荊防敗毒散·荊防導赤散·荊防瀉

5. 高炳熙: 少陰人 少陽人病證論의 概要, 서울, 月刊韓方界6월호, pp. 32-33, 1991.

6. 洪淳用, 李乙浩: 前揭書, pp. 292-303.

白散·猪 車前子湯·滑石苦麥湯·獨活地黃湯·荊防地黃湯·十二味地黃湯·地黃白虎湯·陽毒白虎湯·涼膈散火湯·忍冬藤地骨皮湯·熟地黃苦麥湯·木通大安湯·黃連清腸湯·朱砂益元散·甘遂天一丸이 있다.

지금까지 發表된 論文에 따르면 少陽人 新定處方만을 가지고 病證別로 分類하여 少陽人病證, 方劑要約表⁷⁾가 있는데, 이 內容을 參考로하여 少陽人 新定處方을 病證別로 나누어 表로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表 1).

한편, 『東醫壽世保元』 原文과 處方內容에 입각하여 새로운 處方分類表, 즉 少陽人 病證에 따른 新定處方과 『傷寒論』處方, 元明時代處方을 分類해 보았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表 2).

『傷寒論』과 元明時代의 少陽人病證 經驗設方들은 (表 2)와 같이 病證分類에 따라 나눌 수 있었다.

表 1. 少陽人 新定處方의 病證別 分類

表病證 (脾受寒表寒病證)		裏病證 (胃受熱裏熱病證)	
少陽傷風證	荊防敗毒散 荊防導赤散 荊防瀉白散	胸膈熱證	陽毒白虎湯 地黃白虎湯 涼膈散火湯 忍冬藤地骨皮湯
亡陰證	猪 車前子湯 荊防瀉白散 荊防地黃湯 滑石苦麥湯 熟地黃苦麥湯	陰虛午熱證	熟地黃苦麥湯 獨活地黃湯 十二味地黃湯

이들 病證 經驗設方들이 과연 少陽人 病證原理에 合당한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傷寒論』에 있는 經驗設方들의 使用條文을 정리하였고 이들의 病理的 特徵을 要約하여 少陽人 表裏病證과의 關聯性을 다음과 같이 살펴 보았다.

表 2. 少陽人 新定處方, 『傷寒論』과 元明時代醫書中 少陽人經驗設方의 病證別 分類

	病 證	細部病證	新定處方	傷寒論處方	元明時代處方
表病證	少陽傷風證	太陽病 少陽傷風 結胸	荊防敗毒散 荊防導赤散 荊防瀉白散	小柴胡湯 大青龍湯 大陷胸湯 小陷胸湯 十棗湯 五 散	導赤湯(萬病回春) 荊防敗毒散(古今醫鑑)
	亡陰證	身熱頭痛泄瀉亡陰 身寒腹痛泄瀉亡陰	猪 車前子湯 荊防瀉白散 荊防地黃湯 熟地黃苦麥湯 滑石苦麥湯	猪 湯	
理病證	胸膈熱證	裏熱便閉 上消 中消	地黃白虎湯 陽毒白虎湯 涼膈散火湯 忍冬藤地骨皮湯	桂婢各半湯 白虎湯	涼膈散(和劑局方) 黃連猪 丸(得效方) 水銀熏鼻方(丹溪心法) 肥兒丸(和劑局方) 消毒飲(古今醫鑑)
	陰虛午熱證	下消 陰虛午熱	熟地黃苦麥湯 獨活地黃湯 十二味地黃湯	腎氣丸	六味地黃丸(醫學正傳) 生熟地黃飲(醫學入門)

7. 高炳熙: 前掲書, p. 35, 1991.

2. 『傷寒論』中 少陽人病證 經驗設方에 대한 分析⁸⁾

少陽人 脾受寒表寒病證으로 보았으며 마땅히 少陽人 荊防敗毒散을 사용해야 한다고 하였다¹⁰⁾.

2-1. 少陽傷風證에 該當하는 經驗設方

少陽傷風證이란 少陽人의 腎局의 陰氣가 熱邪로 下陷되고 脾局의 陰氣가 熱邪로 壅滯되어 腎局으로 下降하지 못하여 間에 凝聚되어 생기는 것으로 이는 傷寒論에서의 太陽病·少陽經證(少陽傷風證)·結胸證을 포괄하는 概念이다. 少陽傷風證에 속하는 少陽人病證 經驗設方에는 小柴胡湯·大靑龍湯·小陷胸湯·大陷胸湯·十棗湯·五散 등이 있다.

(1) 太陽病 - 大靑龍湯

- * 39條：太陽中風 脈浮緊 發熱惡寒 身疼痛 不汗出而煩躁者 大靑龍湯主之 若脈微弱 汗出惡風者 不可服 服之則 厥逆 筋惕 肉瞤此爲逆也
- * 40條：傷寒 脈浮緩 身不疼 但重 乍有輕時 無少陰證者 大靑龍湯主之

(2) 少陽病 - 小柴胡湯

- * 99條：傷寒中風 五六日 往來寒熱 胸脇苦滿 默默不欲飲食 心煩喜嘔 或胸中煩而不嘔 或渴 或腹中痛 或脇下硬 或心下悸 小便不利 或不渴 身有微熱 或欬者 小柴胡湯主之
- * 103條：傷寒四五日 身熱惡風 頸項強 脇下滿 手足溫而渴者 小柴胡湯主之
- * 104條：傷寒 陽脈 陰脈弦 法當腹中急痛 先與小建中湯 不差者 與小柴胡湯主之
- * 152條：婦人中風 七八日 續得寒熱 發作有時 經水適斷者 此爲熱入血室 其血必結 故使如牝牡 發作有時 小柴胡湯主之
- * 239條：陽明病 發燥熱 大便 小便自可 胸脇滿 不去者 小柴胡湯主之
- * 387條：嘔而發熱者 小柴胡湯主之

『東醫壽世保元』에서 例로 든 條文은 39條이며, 여기에서 가장 핵심 症狀은 煩躁症狀으로 『傷寒論』에서는 이를 肌表의 邪熱이 體內로 陷入하여 鬱蒸하여 생기는 것으로 解釋하고 있다⁹⁾. 大靑龍湯은 이처럼 太陽病에 裏熱을 兼하였을 경우에 使用하는 것으로, 다시 말하여 傷寒에 의한 表邪와 裏熱을 發汗, 淸裏熱하여 동시에 治療하는 方劑인 것으로 볼 수 있다. 李濟馬는 傷寒 太陽病의 大靑龍湯證을

小柴胡湯은 少陽經證의 대표적인 處方으로 使用例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條文은 99條이다. 少陽經의 대표적인 熱型은 寒熱往來로 이는 邪在半表半裏하여 正邪抗爭하는 中에 陽勝하면 發熱하고 陰勝하면 惡寒하는 것으로 解釋할 수 있다. 또한 小柴胡湯의 病因은 한마디로 邪熱과 水飲이 합하여 된 것으로 邪熱과 水飲이 少陽經脈인 胸脇에 絡하면 胸脇苦滿하게 되고, 이것이 上逆하면 喜嘔하게

8. 蔡仁植：傷寒論譯註, 서울, 高文社, 를 참고하여 傷寒論 病證 條文을 조사하였음. pp.31, 43, 46, 66-68, 80, 84, 107-109, 114, 120, 123, 139, 166, 169, 170, 172, 181, 245, 261, 1991.

9. 蔡仁植：上揭書, pp.43-44.

10. 洪淳用, 李乙浩：前揭書, pp.247-248.
 “張仲景曰 太陽病 脈浮緊 發熱惡寒 身痛不汗出而煩躁者 大靑龍湯 主之 論曰 發熱惡寒 脈浮緊 身痛不汗出而 煩躁者 卽 少陽人脾受寒表寒病也 此證不當用大靑龍湯 當用荊防敗毒散”.

되는데甚하면 心煩을 兼하고 輕하면 心煩하기만 하고 嘔하지는 않는 것이다¹¹⁾. 그 외 각각의 症狀들 역시 邪熱과 水飲이 犯하는 장소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라 하였다. 이러한 少陽病의 小柴胡湯證을 李濟馬는 少陽人 脾受寒表寒病의 少陽傷風證으로 보고¹²⁾, 張仲景의 少陽病을 少陽人의 腎局의 陰氣가 熱邪로 下陷되고, 脾局의 陰氣가 熱邪로 인해 壅滯되어 腎局으로 下降·連接하지 못하고 間에 凝聚되어 膠固囚滯되어 생기는 것으로 解釋하였다¹³⁾. 개개의 病證說明에 있어서는 '寒熱往來'를 脾局陰氣가 下降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나타나는 것으로 說明하였고 '口苦咽乾目眩耳聾'의 症狀은 陰氣가 間에 囚滯되어 下降하려하나 下降하지 못하여 생기는 것으로 자세히 說明하고 있다¹⁴⁾. 이 證에 荊防敗毒散으로 清裏熱而降表陰하면 痰飲이 스스로 풀어져 治療되며, 結胸을 豫防할 수 있다고 說明하면서 張仲景이 小柴胡湯의 和解하는 方法으로 轉變만을 막으려 한 것은 잘못이라고 비판하였다¹⁵⁾. 마찬가지로 荊防瀉白散이나 荊防導赤散 또한 少陽傷風證에 使用가능한 處方으로 볼 수 있다.

(3) 結胸證 - 小陷胸湯證

* 145條: 小結胸病 正在心下 按之則痛 脈浮滑者 小陷胸湯 主之

上記 條文에서 小陷胸湯은 邪熱陷入이 輕微하며 이것이 痰飲과 合하여 생기는 小結胸證에 使用하는 處方임을 보여주고 있다¹⁶⁾.

(4) 結胸證 - 大陷胸湯證

* 142條: 傷寒 六七日 結胸熱實 脈沈而緊 心下痛 按之石硬者 大陷胸湯 主之

* 143條: 傷寒十餘日 熱結在裏 復往來寒熱者 與大柴胡湯 但結胸 無大熱者 此爲水結在胸脇也 但頭微汗出者 大陷胸湯 主之

大陷胸湯은 上記 條文에서 볼 수 있듯이 結胸證에 使用하는 處方이다. 結胸은 外邪와 痰, 水등이 결합된 病으로 外邪의 寒, 熱에 따라 熱實結胸과 寒實結胸으로 나뉘고 熱實結胸은 그 정도에 따라 大結胸과 小結胸으로 나뉘는데 大陷胸湯은 그 중 大結胸에 使用하는 處方이다. 143條文을 보면 內陷

11. 蔡仁植: 前掲書, pp. 80-81.

12. 洪淳用, 李乙浩: 前掲書, pp. 248-249.

張仲景曰 少陽之爲病 口苦咽乾目眩 眩而口苦舌乾者 屬少陽 … 口苦咽乾目眩耳聾胸脇滿 或往來寒熱而嘔 屬少陽 忌吐下 宜小柴胡湯和之 論曰此證 不當用小柴胡湯 當用荊防敗毒散 荊防導赤散 荊防瀉白散”.

13. 洪淳用, 李乙浩: 上掲書, p. 250.

張仲景所論少陽病 口苦咽乾胸脇滿或往來寒熱之證 卽少陽人腎局陰氣爲熱邪所陷而脾局陰氣 爲熱邪所壅 不能下降 連接於腎局而凝聚 間 膠固囚滯之病也”.

14. 洪淳用, 李乙浩: 上掲書, p. 250.

“… 此證 嘔者 外寒 包裏熱而挾疾上逆也 寒熱往來者 脾局陰氣欲降未降而或降故 寒熱 或往或來也 … 口苦咽乾目眩者 例證也 …”.

15. 洪淳用, 李乙浩: 上掲書, p. 250.

“… 然 此小柴胡湯 亦非平均和解病不轉變之藥 則從古斯今 得此病者眞是寒心矣 … 後來 信所製荊防敗毒散 豈非少陽人 表寒病三神山不死藥乎 此證 清裏熱而降表陰則痰飲 自散而結胸之證 豫防不成也 …”.

16. 蔡仁植: 前掲書, p. 109.

한 邪熱이 水飲과 搏結하여 胸脇部에 존재하며 水毒이 上蒸하여 頭部에만 汗出하는 경우를 예로 들고 있다¹⁷⁾.

(5) 結胸證 - 十棗湯證

* 160條：太陽中風 下利 嘔逆 表熱者 內可攻之 其人 汗出 發作有時 頭痛 心下硬滿 引脇下痛 乾嘔 短氣 汗出 不惡寒者 此表解 裏未和也 十棗湯主之

十棗湯은 太陽 中風證에 水飲이 胸中에 존재하는 證에 使用하는 것으로, 160條文을 보면 水飲內結로 頭痛, 汗出하고 腸胃에 水飲의 衝激으로 下利 嘔逆하는 症勢를 說明하고 있다¹⁸⁾.

(6) 結胸證(太陽病蓄水證) - 五苓散

* 75條：中風 發熱六七日 不解而煩 有表裏證 渴欲飲水 水入則吐者 名曰水逆 五散 主之

* 72條：太陽病 發汗後 大汗出 胃中乾 煩躁不得眠 欲得飲水者 少少與飲之 令胃氣和則癒 若脈浮 小便不利 微熱消渴者 五散 主之

* 73條：發汗已 脈浮數 煩渴者 五散 主之
164條：本以下之 故心下M 與瀉心湯M 不解 其人 渴而口燥 煩 小便不利者 五散 主之

* 253條：太陽病 寸緩關浮尺弱 其人 發熱汗出 復惡寒 不嘔 但心下者 此以醫下之也 如其不下者 病人不惡寒而渴者 此轉屬陽明也 小便數者 大便必硬 不更衣十日 無所苦也 渴欲飲水 少少與之 但以法救之 渴者宜五散

上記 條文을 綜合해보면 五散은 太陽病 蓄水證에 쓰는 약으로 太陽의 表邪가 膈인 膀胱에 들어가 水와 결합하여 氣化作用이 不能하게 되어 水道失調을 일으켜서 나타나는 證에 使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¹⁹⁾.

앞에서 서술한 大陷胸湯, 小陷胸湯證과 十棗湯證, 五散證은 傷寒 太陽病에 水飲이 停滯되고 水道失調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李濟馬는 이 네가지 湯證을 총괄하여 少陽人 結胸證이라 命名하였고²⁰⁾ 少陽傷風이 甚한 상태로 胸膈과 間에 水氣가 停滯되어 發生하는 것으로 說明할 수 있으며, 處方으로는 荊防導赤散과 甘遂, 그리고 地黃白虎湯을 쓴다고 하였다. 특히 大陷胸湯, 十棗湯에서 使用되는 甘遂의 藥理精神을 살려서 水結로 인해 藥과, 飲食이 내려가지 못한 것을 해결하려 했던 것은 特記할 만한 것이다.

2-2. 亡陰證에 該當하는 經驗設方

亡陰證은 少陽人의 表病證에 泄瀉를 주로하는 病

17. 蔡仁植：上揭書, p. 108.

18. 蔡仁植：上揭書, p. 121.

19. 蔡仁植：上揭書, p. 66.

20. 洪淳用, 李乙浩：前揭書, pp. 252-255.

“張仲景曰 少陽證 汗出 … 宜十棗湯 … 傷寒表未解 醫反下之 膈內拒痛 手不可近 心下滿而硬痛 此爲結胸 宜大陷胸湯 渴欲飲水 水入則吐 名曰水逆 五散 主之 杜壬曰 裏未和者 … 非十棗湯不治 信曰 心下硬痛 手不可近 … 按之則痛 宜小陷胸湯 論曰 右張仲景所論三證 皆結胸病 …”.

證을 가리키는 것으로, 陽이 盛하여 아래에서 陰을 格하므로 陰이 陽으로 막혀 膀胱으로 下降하지 못하고 背 部位로 上逆하여 胸膈의 안으로 숨어버리므로 腸胃가 畏寒하여 泄下하는 症勢이다²¹⁾. 여기서 畏寒而泄下하는 症勢는 陰이 盛해서가 아니라 內炭外水의 형세로 陰이 장차 亡할 徵兆이므로 亡陰證이라 하며²²⁾, 身熱頭痛泄瀉亡陰證과 身寒腹痛泄瀉亡陰證으로 나누어진다.

亡陰證에 該當하는 少陽人病證 經驗設方으로는 猪 湯이 있다.

(1) 亡陰證 - 猪苓湯證

* 233條：若脈浮發熱 渴欲飲水 小便不利者 猪 湯主之

* 234條：陽明病 汗出多而渴者 不可與猪 湯 以 汗多 胃中燥 猪 湯 復利其小便故也

『東醫壽世保元』에 引用된 條文은 233條이며 이 條文에서는 陽明裏熱로 인한 脈浮·發熱·渴欲飲水한 症狀과 熱在下焦하여 小便不利한 症勢에 猪 湯이 使用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李濟馬는 猪 湯證에 少陽人 身熱頭痛泄瀉亡陰證에 使用하는 猪 車前子湯을 使用한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脈浮發熱의 症勢는 表病을 의미하는 것으로 少陽人 身熱頭痛證의 한 형태로 생각할 수 있으며, 小便不利에 使用하는 것으로 보아 猪 湯의 利水作用을 짐작할

수 있는데 이는 表陰을 빨리 下降하게하여 亡陰을 治療하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條文은 少陽人 身熱頭痛泄瀉亡陰證을 說明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3. 胸膈熱證에 該當하는 經驗設方

脾大腎小한 少陽人의 體質의 特性上 脾胃가 위치 한 胸膈에 火熱이 盛한 관계로 表陰이 내려가다 안 내려가면 주로 胸膈部에서 갑자기 裏熱이 盛하게 되는데 이를 胸膈熱證이라고 말할 수 있다. 胸膈熱證은 또한 消渴의 上消, 中消에 대한 李濟馬의 說明에서 그 病理機轉을 찾을 수 있는데, 大腸의 清陽이 上焦 및 中上焦로 上達하지 못하여 胸膈의 火熱을 꺼주지 못하는 病證으로 解釋할 수 있다²³⁾. 胸膈熱證은 裏熱便閉證과 上消, 中消를 포괄하는 概念으로 이에 該當하는 『傷寒論』의 經驗設方으로는 白虎湯과 桂婢各半湯이 있다.

(1) 裏熱便閉證 - 白虎湯

* 229條：三陽合病 腹滿 身重 難以轉側 口不仁而面垢譫語 遺尿 發汗則譫語 下之則額上生汗 手足逆冷 若自汗出者 白虎湯 主之

* 357條：傷寒 脈滑而厥者 裏有熱也 白虎湯 主之

21. 1) 高炳熙：前掲書，p. 33.

2) 洪淳用，李乙浩：前掲書，p. 260.

“陽盛格陰於下則陰爲陽壅 不能下降於膀胱 上逆背 而內通膈裏故 腸胃畏寒而泄下也 畏寒而泄下者 非陰盛也 此所謂 內炭外水 陰將亡之兆也”.

22. 洪淳用，李乙浩：上掲書，p. 260.

“… 少陽人 雖則熱勝 然陽盛格陰 敗陰內通則畏寒而泄下也 此之謂亡陰病也 亡陽亡陰病 非用藥 必死也 不急治 必死也”.

23. 洪淳用，李乙浩：上掲書，p. 278.

“胃局清陽上升而不快足於頭面四肢則成上消病 大腸局清陽 上升而不快足於胃局則成中消病 … 上消 宜用涼膈散火湯 中消 宜用忍冬藤地骨皮湯”.

* 184條：傷寒 脈浮滑 此表有熱 裏有寒(或熱) 白虎湯 主之

229條 條文은 『東醫壽世保元』에 인용된 것으로, 서두에 三陽合病이라고 하였으나 사실은 腹滿·身重·語·自汗出한 陽明內熱의 證이 위주된 때문에 白虎湯으로 主治됨을 論하고 있다²⁴⁾. 그 외 184條와 357條에 있어서는 裏熱壅盛에 의한 熱厥證과 表裏俱熱한 證에 白虎湯이 使用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白虎湯은 『傷寒論』에서는 陽明經證에 該當하는 處方으로서 邪熱在裏한 證에 發汗이 아닌 清裏熱하여 津液을 구하는 대표적인 處方으로 볼 수 있다.

白虎湯은 少陽人新定處方인 地黃白虎湯과 陽毒白虎湯의 立方에 기초가 되는 處方으로 229條에서 白虎湯證이 三陽合病, 陽明內熱의 證을 治하는 것으로 말하였는데 少陽人의 病理的 特性으로 볼 때 李濟馬는 이를 少陽人 胸膈熱證의 한 形態로 이해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裏熱便閉證 - 桂枝各半湯 (桂枝二越婢一湯)

* 28條：太陽病 發熱惡寒熱多寒少 脈微弱者 此無陽也 不可發汗 宜桂枝二越婢一湯

28條는 『東醫壽世保元』 胃受熱裏熱病論篇에 직접 引用되고 있는 條文으로²⁵⁾, 『傷寒論』에서 桂枝二越婢一湯 역시 大靑龍湯과 마찬가지로 太陽病에 裏熱證을 兼한 경우에 쓰는 것으로 보았으며, 李濟馬는 이 條文을 地黃白虎湯을 쓰는 少陽人 胸膈熱證으로 說明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 것 같다.

2-4. 陰虛午熱證에 該當하는 經驗設方

陰虛午熱證은 少陽人에 있어서 表陰降氣와 裏陽升氣가 전부 안됨으로써 陰陽이 모두 虛損되어 생기는 것으로, 몸과 마음을 다스리고 服藥을 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게 되는 症勢라고 하였으며 處方으로는 少陽人 獨活地黃湯과 十二味地黃湯을 使用해야한다고 하였다²⁶⁾. 이는 少陽人 下消와 거의 같은 病理的 段階로 보이는데, 少陽人 下消는 大腸의 清陽이 거의 上升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病證으로 上消, 中消보다 더욱 危險한 것으로 解釋하고 있다²⁷⁾. 이러한 少陽人 陰虛午熱證에 該當하는 『傷寒論』 經驗設方으로는 『金匱要略』의 腎氣丸이 있다.

(1) 腎氣丸²⁸⁾

(『東醫寶鑑』 虛勞²⁹⁾)

* 治虛勞腎損

* 六味地黃元一劑加 五味子四兩內滋肺之源而生

24. 蔡仁植：前掲書，p. 166.

25. 『東醫壽世保元』에는 桂枝各半湯이라고 되어 있으나 실제로 『傷寒論』에는 桂枝二越婢一湯의 條文으로 되어 있다.

26. 洪淳用, 李乙浩：前掲書，p. 282.

“... 若夫陰虛午熱飲水背寒而嘔者 表裏陰陽 俱爲虛損所以爲病尤險 與下消略相輕重 ... 不善攝身心服藥則石之百必死也 此證 當用獨活地黃湯 十二味地黃湯”.

27. 洪淳用, 李乙浩：上掲書，p. 278.

“胃局清陽上升而不快足於頭面四肢則成上消病 大腸局清陽 上升而不快足於胃局則成中消病 上消自爲重證而 中消倍重於上消 中消 自爲險證而 下消倍險於中消”.

28. 『金匱要略』에 나와 있는 腎氣丸은 痰飲咳嗽病과 婦人雜病에 쓰는 것으로 『東醫壽世保元』에 말하고 있는 腎氣丸과 다른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東醫寶鑑』 虛勞와 消渴部分에 제시되어 있는 腎氣丸을 보고 李濟馬가 『東醫壽世保元』에 再引用해놓은 것으로 보인다.

29. 許浚：東醫寶鑑，서울，南山堂，p. 450, 1994.

腎水也

(『東醫寶鑑』消渴³⁰⁾)

* 消渴病 小便反多 如飲水一斗小便亦一斗腎氣丸(方見虛勞仲景)

(『金匱要略』³¹⁾)

* 腎氣丸方：乾地黃 八兩 山藥 山茱萸 各四兩 澤瀉 牡丹皮 茯苓 各三兩 桂枝 附子(晷) 各一兩

腎氣丸은 消渴中 下消 또는 虛勞에 使用하는 處方으로 少陽人의 下消와 陰虛午熱證은 大腸의 清陽을 上升시키는 方法으로 病證을 해결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腎氣丸은 이러한 陰虛午熱證의 獨活地黃湯과 十二味地黃湯을 立方하는데 基礎가 된 處方으로 볼 수 있다.

이상에서 『傷寒論』의 少陽人病證 經驗設方의 條文을 分析해본 結果 그 病理的 特徵과 少陽人 病證 原理와의 聯關性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들 處方의 病理的 特徵을 整理하면 다음 表와 같다(表 3).

(表 3)을 綜合해 보면 表病證에 該當하는 『傷寒論』의 少陽人病證經驗設方은 邪熱과 水飲, 裏病證은 裏熱壅盛과 陰虛內熱의 病理로 要約할 수 있다. 이는 少陽人 表病證의 病理機轉인 表陰不降하고 裏熱壅盛하는 病理와, 脾大하여 脾胃의 火熱이 旺盛하고 大腸의 清陽上升이 안되어 생기는 裏病證의 陰虛午熱의 病理와 어느 정도 一脈相通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少陽人 新定處方의 모태가 되는 『傷寒論』의 經驗設方은 모두 이러한 少陽人 表裏病證에

表 3. 『傷寒論』에 있는 少陽人病證 經驗設方의 病理的 特徵

	四象病證分類	傷寒論處方	傷寒論病證整理
表病證	少陽傷風證	小柴胡湯	邪熱合水飲
		大青龍湯	邪熱陷入鬱蒸
		大陷胸湯	外邪, 痰, 水 (邪熱合水飲) - 重
		小陷胸湯	外邪, 痰, 水 (邪熱合水飲) - 輕
		十棗湯	水飲內結 (太陽中風)
		五散	表邪合水氣 (太陽畜水)
	亡陰證	猪湯	陽明裏熱, 熱在下焦
裏病證	胸膈熱證	白虎湯	陽明內熱, 裏熱壅盛, 邪熱在裏
		桂枝各半湯	太陽病 兼 裏熱
	陰虛午熱證	腎氣丸	陰虛內熱

該當되는 病證과 處方을 먼저 傷寒論 條文에서 찾아 『傷寒論 經驗設方』으로 모아 놓은 것임을 알 수 있다.

3. 元明時代의 少陽人病證 經驗設方에 대한 分析

元明時代의 少陽人病證 經驗設方으로 『東醫壽世保元』에 記載된 것은 총 9方으로, 少陽傷風證에 대한 것은 『萬病回春』의 導赤湯과 『古今醫鑑』의 荊防敗毒散이 있고, 胸膈熱證에 대한 것은 『太平惠民和劑局方』의 涼膈散과 肥兒丸, 『得效方』의 黃連猪九, 『丹溪心法』의 水銀動鼻方, 『古今醫鑑』의 消毒飲 등이 있으며, 陰虛午熱證에 대한 것으로 『醫學正傳』의 六味地黃丸과 『醫學入門』의 生熟地黃丸 등이 있다. 『東醫壽世保元』 少陽人篇 末尾의 處方部分에

30. 許浚：上揭書, p. 506.

31. 1) 李克光：金 要略,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 166, 1989.

2) 蔡仁植：金 要略精解, 大邱, 東洋綜合通信教育院出版社. pp. 105, 193, 1986.

引用되어 있는 內容³²⁾을 病證別로 整理해보면 다음과 같다.

3-1. 少陽傷風證에 該當하는 經驗設方

(1) 導赤湯(『萬病回春』³³⁾)

木通 滑石 黃柏 赤茯苓 生地黃 山梔子 甘草 炒 各一錢 枳殼 白朮 各五分

- 治尿如米 色 不過二服愈
- 今考更定 此方 當去枳殼 白朮 甘草

『萬病回春』에 있는 處方으로 處方名과 處方內容 및 病證으로 볼 때 少陽人 表病證中 少陽傷風證의 荊防導赤散을 立方하는데 參考가 되었을 것으로 추측되며 上記 內容중에서 枳殼·白朮·甘草를 削야 된다고 한 것은 이것들이 少陰人 藥物이기 때문이다.

(2) 荊防敗毒散(『古今醫鑑』³⁴⁾)

羌活 獨活 柴胡 前胡 赤茯苓 荊芥穗 防風 枳殼 桔梗 川芎 人蔘 甘草 各一錢 薄荷 少許

- 治傷寒時氣發熱頭痛項強肢體煩疼
- 今考更定 此方當去枳殼 桔梗 川芎 人蔘 甘草

A 信의 『古今醫鑑』에 있는 處方으로, 小柴胡湯證을 病證經驗例로 들고 있는 少陽人 少陽傷風證에 있어서 李濟馬는 소위 '三神山不死藥'이라고 말할 만큼 훌륭한 藥으로 說明하고 있다³⁵⁾. 이 處方은

少陽人 荊防敗毒散의 모태가 된 것으로 보이며, 處方 內容중에서 桔梗·枳殼·川芎·人蔘·甘草를 削라고 한 것은 이들이 少陽人藥이 아니기 때문이다.

3-2. 胸膈熱證에 該當하는 經驗設方

(1) 涼膈散(『太平惠民和劑局方』³⁶⁾)

連翹 二錢 大黃 芒硝 甘草 各一錢 薄荷 黃芩 梔子 各五分

- 此方 出於局方 治積熱煩躁 口舌生瘡 目赤頭昏
- 今考更定 此方 當去大黃 甘草 黃芩

『太平惠民和劑局方』의 處方으로 少陽人 裏病證中 胸膈熱證의 病證經驗例로 제시된 것으로 보이며, 그 名稱과 病證, 處方內容으로 보아 胸膈熱證의 少陽人 涼膈散火湯의 모태가 되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여기서 大黃·黃芩·甘草를 削야 된다고 한 것은 大黃·黃芩은 太陰人藥이고 甘草는 少陰人藥이기 때문이다.

(2) 黃連猪 丸(『得效方』³⁷⁾)

雄猪 一箇 黃連 小麥 炒 各五兩 天花粉 白茯苓 各四兩 麥門冬 二兩 右爲末 入猪 中 封口安甌中蒸爛 搗 作丸梧子大

- 治強中證
- 今考更定 此方中 麥門冬 一味 肺藥也 肺與腎 一升一降 上下貫通 腎藥五味中 肺藥一味 雖爲

32. 1) 洪淳用, 李乙浩: 前掲書, pp. 294-298.

2) 尹完重: 懸吐祥校東醫壽世保元, 서울, pp. 141-146, 1901.

33. A 信: 萬病回春, 台北, 大中國圖書公社, p. 248, 1974.

34. A 信: 古今醫鑑, 江西, 江西科學技術出版社, pp. 64, 395, 1990.

35. 洪淳用, 李乙浩: 前掲書, p. 250.

“... 然 此小柴胡湯 亦非平均和解病不轉變之乎 則從古斯今 得此病者真是寒甚矣 耳聾胸滿傷風之病 豈可以小柴胡湯疑之乎 噫 後來 信所製荊防敗毒散 豈非少陽人表寒病三神山不死藥乎 ...”

36. 洪元植: 中國醫學大系9卷中「太平惠民和劑局方」, 서울, 도서출판정담, p. 597.

37. 許浚: 前掲書, p. 507.

贅材亦自無妨 不必苛論

危亦林的『得效方』에 強中證에 使用하는 處方으로 되어 있으며, 少陽人 下消의 病證經驗例에 該當하는 處方이다. 총 여섯개의 藥材中에서 다섯 개의 藥材가 腎藥인 이 處方에 있어서, 麥門冬은 肺藥(太陰人藥)으로 肺와 腎은 上下로 通하기 때문에 별로 필요없는 藥材라 하였다.

(3) 肥兒丸(『太平惠民和劑局方』³⁸⁾)

胡黃連 五錢 使君子肉 四錢五分 人蔘 黃連 神麩麥芽 山查肉 各 三錢 五分 白茯苓 白朮 甘草 灸 各 三錢 蘆 二錢 五分 右爲末 黃米糊和丸綠豆大 飲下二三十丸
○ 治 小兒疳積
○ 今考更定 此方 當去 人蔘 白朮 山查肉 甘草而使君子一味 未能經驗的知藥性故 不敢輕論

『太平惠民和劑局方』에 있는 處方으로, 少陽人 中消의 病證經驗例에 該當하며 小兒疳積에 使用한다고 하였다. 여기서 人蔘·白朮·山查·甘草를 빼야 된다고 한 것은 이것들이 少陰人藥材이기 때문이며, 使君子는 經驗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가벼이 論할 수 없다고 하였다.

(4) 消毒飲(『古今醫鑑』³⁹⁾)

牛蒡子 二錢 荊芥穗 一錢 生甘草 防風 各 五分
○ 治 痘不快出及胸前稠密 急用三四服快透 解毒神效 右三方出於 信醫鑑書中
○ 今考更定 此方當去甘草
信의 『古今醫鑑』에 나온 處方으로 少陰人藥인

甘草를 뺀 荊芥·防風·牛蒡子는 少陽人 胸膈熱證의 陽毒發斑에 쓰는 陽毒白虎湯을 만드는데 參考가 된 것으로 보인다.

(5) 水銀熏鼻方(『丹溪心法』⁴⁰⁾)

黑鉛 水銀 各 一錢 朱砂 乳香 沒藥 各 五分 血錫 雄黃 沈香 各 三分 右爲末和勻
捲作紙燃七條 用香油點燈 放床上 令病人放兩脚包住 上用單被 通身蓋之 口 涼水 頻換則不損口 初日用三條 後日每用一條動鼻
○ 治楊梅天疱瘡甚奇
○ 論曰 水銀 破積熱清頭目 制陽回陰於下焦 爲少陽人抑陽扶陰藥中無敵之藥而紙可用之於當日救急之用 不可用之於連日補陰之用者 以其拔山鼎之力 一舉而直搗大敵之巢穴 再舉則敵已解散 反有倒戈之患故也 纏喉風必用之藥

朱震亨의 『丹溪心法』에 나오는 處方으로 少陽人 胸膈熱證의 病證經驗例로 使用되었으며, 處方의 주 재료인 水銀은 少陽人에 있어서 發汗과 頭腦의 火를 씻어주는 역할을 하며 破積熱清頭目하므로써 胸膈熱證의 纏喉風 등에 극히 제한적으로 使用되었음을 알 수 있다.

3-3. 陰虛午熱證에 該當하는 經驗設方

(1) 六味地黃湯(『醫學正傳』⁴¹⁾)

熟地黃 四錢 山藥 山茱萸 各 二錢 澤瀉 牡丹皮 白茯苓 各 一錢 五分
○ 治虛勞
○ 今考更定 此方中 山藥一味 肺藥也

38. 洪元植：前掲書， p. 690.

39. A 信：古今醫鑑， 江西， 江西科學技術出版社， p. 395, 1990.

40. 朱震亨：新編丹溪心法附錄， 서울， 大星文化社， p. 559, 1993.

41. 虞博：醫學正傳， 서울， 成輔社， pp. 157-158, 1986.

六味地黃湯은 虞博의 『醫學正傳』에 나오는 處方으로 少陽人 陰虛午熱證의 病證經驗例 및 獨活地黃湯·十二味地黃湯·荊防地黃湯등의 處方形成에 기초가 되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데, 山藥一味는 肺藥(太陰人藥)이라 언급하여 黃連猪 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불필요한 藥材로 취급하였다.

(2) 生熟地黃丸(『醫學入門』⁴²⁾)

生乾地黃 熟地黃 玄麥 石膏 各 一兩 糊丸梧子大空心茶清下五七十九

○ 治眼昏

李i의 『醫學入門』에 나온 處方으로, 處方內容과 主治·效能으로 볼때 陰虛午熱證의 病證經驗例로 볼 수 있으며 『醫學入門』에는 眼疾患을 治療하는 處方으로 되어 있다. 處方の 재료인 生地黃·熟地黃·玄麥·石膏는 모두 少陽人 處方構成에 중요한 藥材로 매우 多用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少陽人 新定處方的 形成過程에 對한 分析

『東醫壽世保元』의 醫案을 중심으로 한 文獻考察을 통해 少陽人新定處方的 직접적인 聯關性을 언급한 부분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既存處方과 少陽人新定處方的 處方構成 비교를 통해 少陽人 新定處方的 形成過程을 구체적으로 分析해 보았다. 少陽人新定處方은 총 17種으로 그 구체적인 形成課程을 整理해보면 다음과 같다.

(1) 荊防敗毒散

李濟馬는 『傷寒論』에서의 大靑龍湯證과 小柴胡湯證을 少陽人脾受寒表寒病證으로 보고 여기에 少陽人 荊防敗毒散을 써야한다고 하였다⁴³⁾. 그러나 少陽人 荊防敗毒散은 大靑龍湯과 小柴胡湯의 病證을 참고하였을 뿐, 處方內容을 기본으로 하지는 않았고 직접적으로는 信의 『古今醫鑑』에 있는 荊防敗毒散을 토대로하여 만든 것이다. 『古今醫鑑』에서 荊防敗毒散은 人蔘敗毒散의 活套에서 風熱에 의한 傷寒을 治療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古今醫鑑』의 荊防敗毒散에서 少陰人藥인 枳殼·川芎·人蔘·甘草와 太陰人藥인 桔梗을 뺀 다음 開腎之胃氣而消食進食하는 生地黃, 地骨皮와⁴⁴⁾ 利尿 滲濕熱하는 車前子를 습하여 少陽人 荊防敗毒散이 만들어지게 된다. 『古今醫鑑』에서 風熱을 祛風清熱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던 荊防敗毒散은 四象醫學에서 上記와 같은 변화를 거쳐 降表陰 清裏熱하여 少陽人 脾受寒表寒病을 治療하는 대표적인 處方으로 변화하게 된다. 處方 內容중 荊芥·防風·羌活·獨活·茯苓·車前子는 少陽人에 있어 降表陰 利水作用⁴⁵⁾과 더불어 間에 停滯되어 있는 陰氣를 腎局으로 下降시켜주는 藥材이며 表病證 處方들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表病證 處方的 주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東醫壽世保元』에서는 荊芥·防風·羌活·獨活을 腎陰을 大補하는 藥材로 說明하고 있는데⁴⁶⁾, 이는 降表陰하여 腎局으로 陰氣를 接續하므로써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少陽人 荊防敗毒散은 少陽人脾受

42. 李i : 新校醫學入門, 서울, 大星文化社, p. 443, 1994.

43. 脚註 10, 12 參照.

44. 洪淳用, 李乙浩 : 上揭書, p. 304.

生地黃, 地骨皮는 東武遺稿에 '開腎之胃氣而消食進食' 한다고 되어있다.

45. 洪淳用, 李乙浩 : 上揭書, p. 206.

"若欲利小便則乾薑良薑陳皮青皮香附子益智仁 能利少陰人小便 荊芥防風羌活獨活茯苓 澤瀉 能利少陽人小便".

寒表寒病의 少陽傷風證을 說明하고 있는 『傷寒論』의 大靑龍湯證과 小柴胡湯證의 病證原理에 입각하여 이에 적합한 處方으로 『古今醫鑑』의 荊防敗毒散을 선택하여 이를 토대로 表病證 少陽傷風證을 해결할 수 있도록 알맞게 變形시켜 만든 處方이라고 말할 수 있다.

<參考>

* 荊防敗毒散 (『古今醫鑑』)

柴胡 甘草 桔梗 人蔘 羌活 獨活 川芎 茯苓 枳殼 前胡

上, 每服一兩, 生薑, 薄荷煎服, 風熱, 加荊芥, 防風, 名荊防敗毒散

* 荊防敗毒散 (『東醫壽世保元』)

羌活 獨活 柴胡 前胡 荊芥 防風 赤茯苓 生地黃 地骨皮 車前子 各一錢

右方治頭痛寒熱往來者宜用.

(2) 荊防導赤散

李濟馬는 『傷寒論』 少陽經의 小柴胡湯證과 아울러 結胸證에 使用하는 十棗湯·小陷胸湯·大陷胸湯·五散의 病證을 少陽人 表病證의 少陽傷風證의 結胸證으로 보았고 이들 病證에 使用할 수 있는 少陽人 處方으로 만든 것이 荊防導赤散이다⁴⁷⁾. 『東醫壽世保元』에 의하면 荊防導赤散은 『萬病回春』의 導赤

湯으로부터 만들어진 處方임을 알 수 있다. 導赤湯에서 '導赤'의 의미를 보면 '赤'은 心色을 의미하고 따라서 導赤이란 心熱하여 心移熱於小腸한 것을利尿로서 心熱을 下泄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⁴⁸⁾. 이것은 少陽人 表證에 利水로서 表陰을 내리는 治法을 使用하는 것과 一脈相通한 것으로 보인다. 導赤湯은 小腸熱로 小便不利한 證에 使用하였던 處方으로 여기에서 少陰人藥인 枳殼·白朮·甘草를 빼고 滑石·黃柏·赤茯苓·山梔子를 더 댈 후 玄蔘·瓜蒌仁·前胡·羌活·獨活·荊芥·防風을 加하면 荊防導赤散이 된다.

荊防導赤散은 少陽人 病證中 少陽傷風證의 結胸證에 使用하는 處方으로 그 病理的 特徵은 外邪와 痰, 水로 要約할 수 있다. 따라서 荊防導赤散은 導赤湯 재료인 生地黃·木通과 少陽人 利水之劑인 荊芥·防風·羌活·獨活로서 降表陰하고 玄蔘·前胡·瓜蒌仁으로 직접적으로 痰을 치는 적극적인 治療方法을 使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參考>

* 導赤湯 (『萬病回春』)

木通 滑石 甘草梢 黃柏 茯苓 生地黃 枳殼 白朮 梔子

* 荊防導赤散 (『東醫壽世保元』)

生地黃 3錢 木通 2錢 玄蔘 瓜蒌仁 各 1錢 5分

46. 1) 洪淳用, 李乙浩: 上揭書, p. 300.

2) 尹完重: 前揭書, p. 148.

"荊芥, 防風, 羌活, 獨活, 俱是補陰藥, 荊防, 大清胸膈散風, 羌獨, 大補膀胱真陰, 無論頭腹痛 滿泄瀉, 凡虛弱者, 數百貼用之, 無不必效, 屢試屢驗".

47. 洪淳用, 李乙浩: 前揭書, pp. 252-255.

"張仲景曰 少陽證 汗出 心下 硬滿 引脇下痛 乾嘔短氣不惡寒 表解裏未和也 宜十棗湯 若合下不下 令人脹滿 遍身浮腫 傷寒表未解 醫反下之 膈內拒痛 ... 此爲結胸 宜大陷胸湯. 渴欲飲水入即吐 名曰水逆 五散 主之. 杜子曰 裏未和者 皆痰與燥氣壅於中焦 ... 非十棗湯不治. 信曰 心下硬痛 水不可近 ... 爲大結胸 大陷胸湯下之 反加煩躁者 死 小結胸 正在心下 按之則痛 宜小陷胸湯.

論曰 右張仲景所論三證 皆結胸病 而膈內拒痛 水不可近 燥渴 語者 結胸之最尤甚證也 ... 凡結胸無非險證 當先用甘遂 仍煎荊防導赤散而壓之 ...".

48. 申載鏞: 方藥合編解說, 서울, 成輔社, p. 243, 1989.

前胡 羌活 獨活 荊芥 防風 各1錢. 右方 治
頭痛胸膈煩熱者宜用

(3) 荊防瀉白散

荊防瀉白散은 『傷寒論』 少陽經의 小柴胡湯證을 참고하여 少陽人病證에 使用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며, 또한 桂麻各半湯·桂婢各半湯(桂枝二越婢一湯)證中에 胸膈熱이 심하지 않아서 大便이 하루가 지나기 前에 通하는 輕證의 경우에 少陽人에게 使用할 수 있는 것으로 『東醫壽世保元』에 記載되어 있다⁴⁹⁾. 李濟馬는 이러한 病證들을 少陽人 脾受寒 表寒病證으로 본 것이며 荊防瀉白散은 少陽傷風證과 亡陰證에 使用하는 處方으로 되어 있다. 處方名으로 보아 瀉白散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이나 處方 內容으로 보면 瀉白散의 재료는 전혀 使用되지 않았고 瀉白散에서 瀉白의 의미, 즉 瀉肺·瀉火의 의미⁵⁰⁾만을 빌린 것으로 보인다.

處方內容으로 보면 亡陰證 身熱頭痛泄瀉證에 使用하는 猪 車前子湯과 거의 유사하여 猪 車前子湯에서 猪 車前子 대신 生地黃만 넣으면 荊防瀉白散이 된다. 따라서 荊防瀉白散은 猪 車前子湯을 먼저 만든 후 猪 車前子 대신 涼血·生血·瀉火의 작용이 있는 生地黃을 使用하여 猪 車前子湯의 利水의 개념보다는 다소 瀉火作用에 중점을 둔 處方으로 瀉白散의 이름을 빌어 새로운 處方을 만든 것

으로 생각된다.

〈參考〉

- * 瀉白散 (小兒藥證直訣 下卷方)
桑白皮 地骨皮 各2錢 甘草 1錢 粳米 百粒
- * 荊防瀉白散 (『東醫壽世保元』)
生地黃 3錢 茯 澤瀉 各2錢 石膏 知母 羌活 獨活 荊芥 防風 各1錢
右方, 治頭痛膀胱 燥者宜用
- * 猪 車前子湯 (『東醫壽世保元』)
猪 車前子湯部分參照

(4) 猪苓車前子湯

猪 車前子湯은 『丹溪心法』에 나오는 柴 湯의 病證과 傷寒 陽明病의 猪 湯의 病證을 참고하여 만들어진 것이며⁵¹⁾, 處方內容으로 볼 때 猪 車前子湯은 직접적으로 『傷寒論』의 猪 湯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猪 湯은 陽明經熱證에 의한 脈浮·發熱·渴欲飲水의 症狀과 下焦熱에 의한 小便不利에 의한 症勢에 熱을 풀면서 利水의 효과를 갖는다. 이러한 清裏熱하고 利水의 효과를 갖는 陽明經熱證의 處方인 猪 湯은 滑石과 阿膠를 빼고 清裏熱하는 石膏·知母와 少陽人 利水之劑로 降表陰·補腎陰하는 荊芥·防風·羌活·獨活·車前子를 加하여 表陰을 내리는 효과를 強化시키므로써 猪 湯과 같이 裏熱에 의한 發熱과 小便不利 症狀외에 少陽人

49. 洪淳用, 李乙浩: 前揭書, pp. 248-249, 270-271.

“脚註 12 參照”.

“張仲景曰 太陽病 八九日 如衄狀 發熱惡寒 熱多寒少 … 身必痒宜桂麻各半湯. 太陽病 似衄 發熱惡寒 寒多熱少 脈微弱者 此亡陽也 身必痒 不可發汗 宜桂婢各半湯 論曰此證 大便不過 晝夜而通者 當用荊防瀉白散”.

50. 申載鏞: 前揭書, p. 225.

51. 洪淳用, 李乙浩: 前揭書, pp. 256, 271-272.

“朱震亨曰 傷寒陽證 身熱脈數 煩渴引飲大便自利 宜柴 湯. 盤龍山老人 論曰少陽人身熱頭痛泄瀉 當用猪 車前子湯 荊防瀉白散 身寒腹痛泄瀉 當用滑石苦蔞湯 荊防地黃湯 此病 名謂之亡陰病”.

“張仲景曰 陽明證 小便不利 脈浮而渴 猪 湯 主之 三陽合病 … 白虎湯主之. 論曰 陽明病證 但熱無寒之謂也 … 然 古方 猪 湯 不如新方 猪 車前子湯之俱備 …”.

脾受寒 表寒病에 身熱, 頭痛 하면서 泄瀉하는 亡陰 證에 응용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인다.

<參考>

* 猪 湯(『傷寒論』)

猪 赤茯 澤瀉 滑石 阿膠 各一錢

* 猪 車前子湯(『東醫壽世保元』)

澤瀉 茯 各2錢 猪 車前子 各1錢5分 知母 石 菖 羌活 獨活 荊芥 防風 各1錢

右方, 治頭痛有泄瀉者宜用

(5) 荊防地黃湯

『東醫壽世保元』에 引用한 바에 의하면 荊防地黃湯은 李子建의 醫案과 '傷寒陽證 身熱脈數 煩渴引飲 大便自利' 한데 使用하는 朱震亨의 柴 湯證, 『太平惠民和劑局方』에 '腎經虛損 五臟齊損' 한 경우에 使用하는 六味地黃湯의 病證을 少陽人의 身寒腹痛 泄瀉亡陰證으로 보고 응용한 處方이다⁵²⁾. 地黃湯이라는 이름을 使用한 것과 處方內容上 熟地黃·山茱萸·茯 ·澤瀉의 네가지 藥材가 使用되고 있는 것을 보면 荊防地黃湯은 六味地黃湯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이며, 주로 表病證中 亡陰證에 使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六味地黃湯에서 肺藥(太陰人藥)인 山藥을 빼고 裏病證에 該當하는 食滯 滿症과 血證에 使用하는 牡丹皮를 뺀으로서 表病證쪽에 더 가깝게 하였고 거기에 車前子·荊芥·防風·羌活·獨活을 加하여 降表陰의 효과를 증대시켜 表病證藥의 의미를 더욱 強化시켰다. 荊防地黃湯은 여러 가지 加減法을 통하여 咳嗽·血證·偏頭痛·食滯 滿·有火者·頭痛 煩熱證등 다양한 경우에 응용할 수 있는 藥으로 되

어 있다.

한편 『東醫壽世保元』에 있는 荊防地黃湯의 處方 說明중에 荊芥·防風·羌活·獨活을 說明한 것을 보면 이들은 모두 少陽人 補陰藥에 속하며 荊芥·防風은 大清胸膈散風하고 羌活·獨活은 大補膀胱眞陰한다고 說明하고 있는데(아래 參考部分參照) 여기에 대해서는 앞에서 說明한 바 있다.

<參考>

* 六味地黃丸 (『太平惠民和劑局方』)

乾山藥 山茱萸(去核) 各4兩 澤瀉(去毛) 牡丹皮 白茯 各3兩 熟地黃 8兩

(『醫學正傳』에 記載된 內容)

* 荊防地黃湯 (『東醫壽世保元』)

熟地黃 山茱萸 茯 澤瀉 各2錢 車前子 羌活 獨活 荊芥 防風 各1錢

○ 咳嗽加前胡, 血證加玄蔘, 牡丹皮, 偏頭痛加黃連, 牛蒡子, 食滯 滿者, 加牡丹皮, 有火者, 加石膏, 頭痛煩熱與血證者, 用生地黃, 加石膏者, 去山茱萸.

○ 荊芥, 防風 羌活, 獨活, 俱是補陰藥, 荊防, 大清胸膈散風, 羌獨, 大補膀胱眞陰, 無論頭痛 滿泄瀉, 凡虛弱者, 數百貼用之, 無不 必效, 屢試屢驗

(6) 滑石苦蔘湯

滑石苦蔘湯은 李子建의 醫案과 朱震亨의 柴 湯證으로 예를 들고 있는 少陽人 身寒腹痛泄瀉亡陰證에 使用하는 處方으로⁵³⁾, 朱震亨의 醫書에서 病證은 參考하였으나 處方內容上 특별히 處方形成에

52. 洪淳用, 李乙浩 : 上揭書, pp. 256-257.

"李子建傷寒十勤論曰 傷寒腹痛 亦有熱證 不可輕服溫煖藥 又曰傷寒自利 當觀陰陽證不可例服溫煖及止瀉藥 朱震亨曰 傷寒陽證 身熱脈數 煩渴引飲大便自利 宜柴 湯. 盤龍山老人 論曰少陽人身熱頭痛泄瀉 當用猪 車前子湯 荊防瀉白散 身寒腹痛泄瀉 當用滑石苦蔘湯 荊防地黃湯 此病 名謂之亡陰病".

53. 脚註 50 參照.

基礎가 된 既存處方은 찾아볼 수 없었다. 處方內容을 보면 少陽人 痢疾에 使用하는 黃連清腸湯과 身熱頭痛泄瀉亡陰證에 使用하는 猪 車前子湯과 유사한 處方으로 보이며, 滌腎之穢氣하는 滑石과 胃熱 煩躁를 瀉하고 解毒·清熱·瀉濕熱하는 苦蔘을 主로하여 그의 茯苓·澤瀉·羌活·獨活·荊芥·防風의 降表陰·利水之劑와 黃連·黃芩의 清熱藥物로 構成되어 있음을 알수있다. 滑石苦蔘湯은 降表陰利水하는 脾受寒表寒病的 處方精神에 滑石과 苦蔘의 虛煩을 治하고 滑泄을 방지하는 精神으로 身寒腹痛泄瀉에 응용할 목적으로 立方되어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參考>

* 滑石苦蔘湯 (『東醫壽世保元』)

澤瀉 茯苓 滑石 苦蔘 各2錢 川黃連 黃芩 羌活 獨活 荊芥 防風 各1錢
右方, 治腹痛無泄瀉者宜用

(7) 熟地黃苦蔘湯

熟地黃苦蔘湯은 少陽人 身寒腹痛泄瀉中 滑石苦蔘湯보다 다소 重한 경우에 使用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어 滑石苦蔘湯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李子建의 醫案과 朱震亨의 柴 湯의 病證에서 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⁵⁴⁾. 또한 王好古, 朱震亨 등의 醫案을 參考

한 少陽人 消渴中 下消에 使用하는 處方으로 되어 있다⁵⁵⁾. 熟地黃苦蔘湯은 직접적으로는 病證과 處方 構成의 모든 面에서 虛勞에 使用하는 六味地黃湯에서 유래한 處方이다. 六味에서 肺藥(太陰人藥)인 山藥을 빼고 牡丹皮 대신 知母·黃芩을 加하여 陰虛熱을 조절하고 清濕熱하는 苦蔘을 加하여 少陽人 身寒腹痛泄瀉亡陰證과 少陽人 下消, 陰虛午熱證에 使用할 수 있게 하였다. 熟地黃苦蔘湯에 있어서는 裏病證中 陰虛午熱證과 胸膈熱證의 下消證에 使用할 수 있으며 또한 表病證의 亡陰證中에서 身寒腹痛泄瀉에 使用할 수 있다.

<參考>

* 熟地黃苦蔘湯 (『東醫壽世保元』)

熟地黃4錢 山茱萸2錢 白茯苓 澤瀉 各1錢 5分
知母 黃芩 苦蔘 各1錢
右方, 治下消者宜用

(8) 涼膈散火湯

涼膈散火湯은 少陽人消渴의 上消와 胸膈熱證에 使用되는 處方이다. 王好古, 朱震亨 등의 醫書중에서 病證을 인용하였으며⁵⁶⁾, 王好古의 醫書에 있는 涼膈散의 使用例를 『東醫壽世保元』에 記載하고 있는 것을 보면 處方의 직접적인 토대는 病證이나 處方構成面에서 모두 『太平惠民和劑局方』의 涼膈散에

54. 洪淳用, 李乙浩: 上揭書, p. 259.

“少陽人 身寒腹痛泄瀉 一晝夜間 三四五次者 當用滑石苦蔘湯 身寒腹痛泄瀉二三晝夜間無泄瀉 或艱辛一次泄瀉者 當用滑石苦蔘湯 或用熟地黃苦蔘湯”.

55. 洪淳用, 李乙浩: 上揭書, p. 259.

“少陽人 身寒腹痛泄瀉 一晝夜間 三四五次者 當用滑石苦蔘湯 身寒腹痛泄瀉二三晝夜間無泄瀉 或艱辛一次泄瀉者 當用滑石苦蔘湯 或用熟地黃苦蔘湯”.

55, 56. 洪淳用, 李乙浩: 上揭書, pp. 276-278.

“王好古曰渴病 … 可立而待也. 朱震亨曰 上消者 … 下消者 煩躁引飲 小便如膏腿膝枯細 六味地黃湯主之. 醫學綱目曰 渴而多飲 … 有膏油 爲下消. 危亦林曰 因耽嗜色慾 … 三消之中 最爲難治. 論曰 消渴者 … 上消宜用涼膈散火湯 中消宜用忍冬藤地骨皮湯 … 下消 宜用熟地黃苦蔘湯 尤宜寬 其心 不宜膠小其心 寬 則所欲必緩 清陽 上達 膠小則所欲必速 清陽下耗”.

서 유래한 것임을 알 수 있다⁵⁷⁾. 凉膈散의 凉은 清凉을, 膈은 横膈膜을 말한다⁵⁸⁾. 横膈膜은 心肺와 胃腸의 경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따라서 凉膈이란 上, 中焦의 實火를 清凉한다는 의미가 된다⁵⁹⁾. 凉膈散의 主治를 보면 臟腑積熱로 인한 頭面部 五官의 熱證과 腸胃燥澁便秘·睡臥不寧譫語·狂症을 治하며 ‘上中焦邪鬱生熱之證’을 治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⁶⁰⁾, 處方構成을 보면 大黃·芒硝·甘草로 瀉下시키고 山梔·薄荷로 祛風熱하며 黃芩·連翹로 清熱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凉膈散의 藥劑中에서 太陰人藥인 大黃·芒硝·黃芩과 少陰人藥인 甘草를 漚 후 少陽人 裏病證의 대표적인 藥劑로 瀉下作用을 가지고 있으면서 清裏熱하는 石膏와, 그의 生地黃·忍冬藤·知母등으로 清熱하고 荊芥·防風으로 大清胸膈散風함으로써 少陽人 胸膈熱證에 凉膈하고 散火하여 大腸의 清陽之氣를 胸膈을 거쳐 頭面四肢까지 充足할 수 있게 한 處方이다. 따라서 凉膈散火湯은 處方名이 主治와 效能을 說明하고 있는 處方中의 하나이다⁶¹⁾.

〈參考〉

* 凉膈散 (『太平惠民和劑局方』)

川大黃 朴硝 甘草 各二十兩 山梔子仁 薄荷葉 (去梗) 黃芩 各十兩 連翹 二斤半

* 凉膈散火湯 (『東醫壽世保元』)

生地黃 忍冬藤 連翹 各2錢 山梔子 薄荷 知母 石膏 防風 荊芥 各 1錢
右方, 治上消者宜用

(9) 忍冬藤地骨皮湯

忍冬藤地骨皮湯은 大腸局의 清陽이 胃局을 充足시키지 못할 때 생기는 少陽人 消渴의 中消에 使用하는 處方으로 既存醫書에서 病證만을 引用하였고⁶²⁾, 處方名이나 處方構成을 보면 알 수 있듯이 既存處方に 근거하지 않은 李濟馬의 獨創의인 處方으로 處方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藥材를 가지고 命名한 경우에 該當한다⁶³⁾.

處方の 主藥으로 선택한 忍冬藤은 李濟馬가 消渴處方을 만드는데 있어 參考한 危亦林의 『得效方』에서 消渴의 합병증인 癰疽를 治療 豫防하는데 使用할 수 있는 藥材이며⁶⁴⁾, 地骨皮는 瀉腎火하며 開胃之胃氣消食進食⁶⁵⁾하는 효과를 가지는 藥材이다. 이러한 두 藥材를 중심으로 하여 黃連·黃栢·玄麥·苦麥·生地黃·知母·山梔子·金銀花의 清熱시키는 藥物에 補陰, 補精의 효과가 있는 山茱萸·枸杞子·覆盆子와 散風大清胸膈하는 荊芥·防風으로 處方이 構成되고 있다. 處方構成으로 보아 알 수 있듯이 少陽人 忍冬藤地骨皮湯은 清熱에 중점을 두고 거기에 補陰·補精과 降表陰의 기능을 加함으로써 少陽人

57. 洪淳用, 李乙浩: 上揭書, p. 280.

“王好古曰 一童子 自端至童 盜汗七年 諸藥不效 服凉膈散三日 病已”.

58. 申載鏞: 前揭書, pp. 219-220.

59. 申載鏞: 上揭書, pp. 219-220.

60. 1) 洪元植: 前揭書, p. 597.

2) 金東植: 東醫壽世保元에서의 舊, 新方에 관한 探究, 사상의학회지 7(1): 299-301, 1995.

61. 金振榮: 前揭書, pp. 45-49.

62. 脚註 55 56 參照.

63. 金振榮: 前揭書, pp. 45-49.

64. 洪淳用, 李乙浩: 前揭書, p. 279.

“危亦林曰 消渴須防發癰疽 忍冬藤 不拘多少 根 莖 花 葉 皆可服”.

65. 洪淳用, 李乙浩: 上揭書, p. 304.

中消證에 있어서 大腸局의 清陽之氣를 胃局으로 끌어 올려 少陽人 中消 및 그 合併症으로 나타나는 癰疽 등을 豫防, 治療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는 消渴 病證에서 上消證의 涼膈散火湯과 下消證, 陰虛午熱證의 熟地黃苦蔘湯, 十二味地黃湯의 中間狀態의 病證으로 이 두가지 處方을 合方하여 만든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參考〉

* 忍冬藤地骨皮湯(『東醫壽世保元』)

忍冬藤 4錢 山茱萸 地骨皮 各 2錢 川黃連 黃栢 玄蔘 苦蔘 生地黃 知母 山梔子 枸杞子 覆盆子 荊芥 防風 金銀花 各1錢

右方治中消者宜用

(10) 地黃白虎湯

地黃白虎湯은 『傷寒論』의 白虎湯을 基本方으로 하여 만든 處方이다⁶⁶⁾. 白虎湯은 『傷寒論』에서는 陽明經證으로 裏熱壅盛, 表裏俱熱한 病勢에 清裏熱하는 處方이다. 이러한 白虎湯에서 少陰人藥인 甘草·粳米를 빼고 生地黃·獨活·防風을 加하여 白虎湯보다 清裏熱하는 效果를 증대시킴으로써 少陽人 胸膈熱證·裏熱便閉證에 쓰는 地黃白虎湯이 立方되었음을 알 수 있다.

〈參考〉

* 白虎湯(『傷寒論』)

石膏 五錢 知母 二錢 甘草 七分 粳米 半合

* 地黃白虎湯(『東醫壽世保元』)

石膏5錢 或1兩 生地黃 4錢 知母2錢 防風 獨活

各1錢

(11) 陽毒白虎湯

陽毒白虎湯은 處方構成으로 볼때 白虎湯과 消毒飲에서 만들어진 處方으로 볼 수 있으며 『東醫壽世保元』에서는 少陽人 胸膈熱證의 陽毒發斑證에 使用하는 處方으로 少陽人 纏喉風에 使用하는 경우도 예로 들고 있다⁶⁷⁾. 白虎湯에서 少陰人藥인 甘草·粳米를 빼고 痘瘡初出하고 胸前稠密한 경우에 使用하는 消毒飲(『古今醫鑑』)의 主材料인 荊芥·防風·牛蒡子를 使用하여 少陽人 裏熱便閉證의 裏熱壅盛하여 나타나는 陽毒發斑證에 使用하게 된다. 또한 地黃白虎湯을 만든 후에 地黃白虎湯의 의미에 陽毒發斑을 治하는 消毒飲의 概念을 加하여 만든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參考〉

* 陽毒白虎湯(『東醫壽世保元』)

石膏 5錢 或 1兩 生地黃 4錢 知母 2錢 荊芥 防風 牛蒡子 各1錢

右方, 治陽毒發斑便秘者宜用

(12) 獨活地黃湯

少陽人의 保命之主인 陰清之氣가 不足하고 鬱滯되어 火氣가 生하고 이것이 오래되면 津液을 傷하게 되어 陰虛狀態가 된다. 獨活地黃湯은 裏陽升氣와 表陰降氣가 모두 안되어 陰陽이 俱虛損되어 생기는 陰虛午熱證에 使用하는 處方이다. 獨活地黃湯 處方形成의 基礎가 된 處方은 六味地黃湯으로, 이

66. 洪淳用, 李乙浩: 上掲書, pp. 271-272.

“三陽合病 頭痛面垢 語澀尿 中外俱熱 自汗煩渴 腹痛身重 白虎湯 主之. 論曰 陽明證者 但熱無寒之謂也 … 古方 白虎湯 不如新方 地黃白虎湯之全美矣 若陽明證 小便利者兼大便秘燥則當用地黃白虎湯”.

67. 洪淳用, 李乙浩: 上掲書, p. 289.

“少陽人 內發咽喉 外腫頰頰者 謂之纏喉風 二三日內 殺人 最急 … 此二證 始發而輕者 當用涼膈散火湯 陽毒白虎湯 重者 當用水銀重鼻方 …”.

는 腎陰을 보충하여 補陰하는 대표적인 處方으로 『太平惠民和劑局方』에 나와 있다. 六味地黃湯中에서 肺藥인 山藥을 빼고 少陽人 降表陰·利水之劑인 荊芥·防風·羌活·獨活 중에서 補腎陰하는 獨活과 清裏胸膈하는 防風을 사용하여 少陽人의 裏病證중 陰虛午熱證⁶⁸⁾, 下消證과 食滯^M 滿, 中風嘔吐症⁶⁹⁾ 등에 使用하게 된다.

〈參考〉

- * 六味地黃丸 (『太平惠民和劑局方』)
乾山藥 山茱萸(去核) 各4兩 澤瀉(去毛) 牡丹皮 白茯苓 各3兩 熟地黃 8兩
(『醫學正傳』內容)
- * 獨活地黃湯 (『東醫壽世保元』)
熟地黃4錢 山茱萸 2錢 茯苓 澤瀉 各1錢5分 牡丹皮 防風 獨活 各1錢
右方, 治食滯^M 滿者宜用

(13) 十二味地黃湯

十二味地黃湯은 獨活地黃湯과 마찬가지로 陰虛午熱, 下消證에 使用하는 處方으로 六味地黃湯을 근본으로하여 立方된 處方으로 볼 수 있다. 六味地黃湯에서 肺藥인 山藥을 빼고 大清胸膈散風하므로써 利水하는 荊芥·防風과 瀉腎火하는 地骨皮·玄蔘을 加하고 枸杞子·覆盆子로 補陰·補精의 의미를 더하여 少陽人 下消, 陰虛午熱의 證이 극심할 경우와 中風吐血에 使用할 수 있게 하였다⁷⁰⁾. 따라서 十二味地黃湯은 獨活地黃湯보다 補陰·補精과 降陰利水

의 效能이 강화된 處方으로 解釋할 수 있다.

〈參考〉

- * 十二味地黃湯 (『東醫壽世保元』)
熟地黃 4錢 山茱萸2錢 白茯苓 澤瀉 各1錢5分
牡丹皮 地骨皮 玄蔘 枸杞子 覆盆子 車前子 荊芥 防風 各1錢

(14) 黃連清腸湯

黃連清腸湯은 少陽人 雜病中 痢疾과 淋疾에 使用하는 處方으로⁷¹⁾ 處方名이나 主治面에 있어서는 『萬病回春』⁷²⁾에 있는 清腸湯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이나 『東醫壽世保元』에 뚜렷하게 언급된 바는 없다. 『萬病回春』의 清腸湯은 小腸의 熱, 心火를 清解하는 處方으로 血尿를 다스리는 것으로 되어 있다. 少陽人 黃連清腸湯은 清腸湯의 藥材中 生地黃·木通·赤茯苓·黃連과 그 외 羌活·防風·澤瀉·猪·車前子로 이루어져 있다.

少陽人 病症分類上으로는 表病證中 亡陰證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處方內容 또한 利水作用이 주로 되어 있고 그외 약간의 清熱解毒作用이 결들여져 있다. 한편 黃連清腸湯은 處方內容이 少陽人 浮腫에 使用하는 木通大安湯과 거의 비슷하여, 木通大安湯에서 猪 대신 荊芥가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다.

〈參考〉

- * 清腸湯 (『萬病回春』)
當歸 生地黃 梔子炒 黃連 赤芍藥 黃栢 瞿麥 赤

68. 洪淳用, 李乙浩: 上揭書, p. 282.

“若夫陰虛午熱飲水背寒而嘔者 表裏陰陽 俱爲虛損所以爲病尤險 與下消 略相輕重 … 此證 當用獨活地黃湯 十二味地黃湯”

69. 洪淳用, 李乙浩: 上揭書, p. 286.

“中風嘔吐 宜用獨活地黃湯 吐血 宜用 十二味地黃湯”.

70. 脚註 68, 69 參照.

71. 洪淳用, 李乙浩: 上揭書, p. 288.

“少陽人痢疾 宜用 黃連清腸湯”.

72. A 信: 萬病回春, 台北, 大中國圖書公社, p. 248, 1974.

茯 木通 蓄 知母 麥門冬 各七分 甘草 五分
燈心一團 烏梅一枚

* 黃連清腸湯 (『東醫壽世保元』)

生地黄 4錢 木通 茯 澤瀉 各2錢 猪 車前子
川黃蓮 羌活 防風 各 1錢

右方, 治痢疾者 宜用, 去木通 2錢 加荊芥1
錢, 淋疾者宜用

(15) 木通大安湯

少陽人 浮腫에 쓰는 處方으로, 少陽人 浮腫은 表
病證(雜病)中 危證의 하나로 『東醫壽世保元』에는
荊防地黄湯에 木通을 加한 木通無憂湯도 使用가능
하다고 說明하고 있다⁷³⁾. 木通大安湯의 藥物構成을
보면, 木通 赤茯 澤瀉·車前子·羌活·防風·荊芥의
利水之劑와 清熱瀉火作用이 있는 生地黄·黃連으로
구성되었으며, 處方名이나 構成藥材上 既存處方과
는 별개의 獨創의인 處方으로 보인다. 그러나 少陽
人 處方中 黃連清腸湯과 處方內容상 거의 같아서
黃連清腸湯에서 猪 대신 荊芥를 加하면 되는데,
따라서 黃連清腸湯을 만든 후, 藥材 하나만 바꾸어
서 만든 處方으로도 생각할 수 있으며 利水作用에
있어서는 黃連清腸湯보다는 대폭 강화된 것으로 보
인다.

<參考>

* 木通大安湯 (『東醫壽世保元』)

木通 生地黄 各5錢 赤茯 2錢 澤瀉 車前子 川
黃蓮 羌活 防風 荊芥 各1錢

右方, 治不從者宜用, 險病始終用藥, 當至百餘
貼, 黃連, 澤瀉, 爲貴材則貧者或去連澤

(16) 甘遂天一丸

『傷寒論』에서 大·小陷胸湯證·十棗湯證 등을 使用
하는 病證인 結胸證은 少陽人의 表病證(脾受寒表寒
病證)에 該當하는 病證이다. 그런데 結胸證에 使用
하는 大陷胸湯, 十棗湯에 공통적으로 甘遂가 들어
가 있어서 李濟馬는 이러한 結胸證 水入還吐에 使
用하는 藥物들의 效能을 甘遂 一味의 작용으로 생
각한 듯하다. 結胸證에 甘遂를 使用하는 方法은 少
陽人 表病證에 그 구체적인 臨床例를 통해 자세히
說明하고 있으며, 甘遂天一丸은 이러한 精神에 입
각하여 만들어진 處方으로 甘遂에 冷, 辛하여 火를
제거하고 除腎之久病하는 輕粉⁷⁴⁾을 일정비율로 合
하여 만든 處方이다. 少陽人 泛論에는 少陽人의 咽
喉病에 使用한 경우도 예로 들고 있다⁷⁵⁾. 한편, 甘
遂와 輕粉(水銀) 등은 毒性이 强하여 함부로 쓸 수
없으므로 李濟馬는 甘遂天一丸의 說明에서 그 使用
例에 대해 자세히 說明을 덧붙이고 있는데 이를 유
념할 필요가 있다(아래 參考의 甘遂天一丸의 使用
例參照).

<參考>

* 大陷胸湯 (『傷寒論』)

大黃 三錢 芒硝 二錢 甘遂末 五分

* 十棗湯 (『傷寒論』)

芫花微炒 甘遂 大戟炒 等分爲末 別取大棗 十枚

* 甘遂天一丸 (『東醫壽世保元』)

甘遂末1錢 輕粉末 1分 和勻糊丸分作十丸, 朱砂
爲依

作丸乾久則堅硬難和, 每用時以紙二三疊包

73. 洪淳用, 李乙浩: 前掲書, p. 286.

“浮腫爲病 急治則生 不急治則危 … 浮腫 初發 當用木通大安湯 或荊防地黄湯 加 木通日再服則六七日內 浮腫 必解 …”.

74. 洪淳用, 李乙浩: 上掲書, p. 304.

75. 洪淳用, 李乙浩: 上掲書, p. 290.

“嘗治少陽人咽喉 水鬱不入 大便不通三日 病至危境用甘遂天一丸卽效”.

裏，以搗碎作序末三四片，口含末因飲井華水和下，候三四辰刻內，不下利則再用二丸下利三度爲適中，六度爲快過，預煎米飲，下利二三度，因進米飲，否則氣陷而難堪耐，治結胸水入還吐，

- 甘遂一錢輕粉五分，分作十九丸則名曰輕粉甘遂龍虎丹，
- 輕粉，甘遂各等分作十九丸則名曰輕粉甘遂雌雄丹
- 輕粉一錢，乳香，沒藥，甘遂各五分，分作三十九丸則名曰乳香沒藥輕粉丸，
- 輕粉發汗，甘遂下水，輕粉藥力，一分則快足，五厘則無不及，甘遂藥力，一分五厘則快足，七八厘則無不及，輕粉，甘遂，自是毒藥，俱不可輕易過一分用之，甚極輕重，病欲頭腦滌，火則輕粉爲君，病欲胸膈下水則甘遂爲君

(17) 朱砂益元散

少陽人是火氣가 잘 생활 수 있는體質이므로火氣極盛한 夏月에 더위에 잘 損傷받을 수 있다. 朱砂益元散은 少陽人에 있어서 夏月滌暑하는 處方으로서, 中暑에 의한 吐瀉 下痢를 다스리고 除煩止渴, 解百藥酒食邪毒하는 益元散에서 나온 處方이다. 益元散에서 少陰人藥인 甘草를 빼고 通腎之結胸하여 胸膈之下의 水氣를 내리는 甘遂와 定魂·鎮心·養神하는 朱砂와 利水之劑인 澤瀉를 加하여 朱砂益元散이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參考〉

- * 益元散 (宣明論方 卷十方)
滑石 6兩 甘草 1兩
- * 朱砂益元散 (『東醫壽世保元』)

滑石 2錢 澤瀉 1錢 甘遂 5分 朱砂 1分
右爲末，溫水或井華水調服，夏月滌暑宜用

5. 少陽人 病證의 輕重差異에 따른 方劑構成의 變化

李濟馬는 生命維持에 중요한 要因으로 體質別로 '保命之主(正氣)'를 提示하고 있는데, 따라서 이러한 '保命之主(正氣)'를 保存하려는 勞力 또한 處方構成에 많은 影響을 끼칠 것으로 類推해 볼 수 있다. 少陽人에 있어서 病의 輕重을 保命之主(正氣)인 陰清之氣가 얼마나 不足하고 弱해졌는가로 보았을 때, 少陽人 表病證은 少陽傷風·結胸·亡陰의 순서로 重해지며 裏病證은 裏熱便閉·胸膈熱證·陰虛午熱의 순서로 病證이 重해진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少陽人 處方또한 輕證에서 重證으로 變化할 때 일정한 變化를 거치게 되는 것이며, 이러한 變化過程중 일정한 原理가 있는것인지 다음에서 살펴 보았다.

少陽人 病證의 輕重과 處方을 연계하여 <表 2>에 依據 整理하면, 表病證에서는 少陽傷風證·結胸證에 속하는 荊防敗毒散·荊防導赤散·荊防瀉白散에서 亡陰證에 속하는 猪 車前子湯·滑石苦蓼湯·荊防地黃湯·熟地黃苦蓼湯으로 갈수록 病證이 重해진다고 볼 수 있으며, 裏病證에서는 裏熱便閉證의 陽毒白虎湯·地黃白虎湯에서 胸膈熱證의 涼膈散火湯·忍冬藤地骨皮湯, 陰虛午熱證의 熟地黃苦蓼湯·獨活地黃湯·十二味地黃湯으로 갈수록 病證이 重해진다고 볼 수 있다⁷⁶⁾.

이처럼 病證이 輕證에서 重證으로 變化할 때 處

76. 裏病證에서 涼膈散火湯, 地黃白虎湯證을 輕重으로 구분함은 어렵고 차라리 病의 緩急으로 구분함이 합당할지 모른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陰清之氣 不足의 정도로 볼 때 緩證(慢性)에 해당하는 涼膈散火湯證이 地黃白虎湯證보다 重證이라고 설정하였다.

方內容의 變化를 살펴보기 위하여 먼저 少陽人 藥物을 表裏病證의 治法에 따라 크게 降表陰利水之劑와 清裏熱之劑, 補陰之劑 등으로 다음표와 같이 나누어 보았다(表 4).

上記 表 4의 分類에 있는 것처럼 少陽人 新定處方 17種에 들어있는 35種의 藥物들을 少陽人 表裏病證의 治法에 따라 降表陰藥物·清裏熱藥物·補陰藥物로 나누어 分類한 것은 『本草學』⁷⁸⁾에서의 藥物分類과 『東武遺稿』⁷⁹⁾에 기록되어 있는 藥物들의 效能을 비교, 綜合하여 整理한 것이다.

이들 藥物들의 本草學의 分類와 『東武遺稿』의 內容을 整理해보면 다음 표와 같다(表 5).

이를 바탕으로 少陽人 病證이 輕, 重證으로 變化할 때 處方의 主된 흐름이 어떻게 變化하는지를 調査하기 위하여 各 該當藥物群中 대표적 藥物을 몇 가지씩 선택하여 病證의 輕重에 따른 處方에 있어

서 出現與否를 조사하여 다음과 같이 整理하였다(表 6).

表 6의 內容을 綜合하여 다음과 같은 結果를 얻을 수 있었다.

表病證에 있어서는 熟地黃苦蔘湯을 제외하고는 모두 降表陰之劑를 使用하고 있을 만큼 降表陰利水에 치중하고 있으며, 亡陰證 處方으로 表病證에서 가장 重證에 該當하는 荊防地黃湯과 熟地黃苦蔘湯에 이르러서는 補陰之劑가 使用되기 시작하여 處方의 주 흐름을 形成하고 있다. 裏病證에 있어서는 輕證에 있어서는 表病證에서는 별로 중요시 되지 않던 清裏熱之劑가 處方의 主된 흐름을 形成하고 있으며 거기에 降表陰藥物이 부분적으로 使用되고 있다. 裏病證이 重證으로 진행하면서 清熱之劑의 使用은 줄어들면서 결국 熟地黃苦蔘湯과 獨活地黃湯 十二味地黃湯에 이르러서는 熟地黃 山茱萸 등의

表 4. 少陽人 藥物의 治法에 따른 分類⁷⁷⁾

	分 類	主 藥 物	應 用 處 方
降表陰藥	解 表	荊芥, 防風, 羌活, 獨活, 牛蒡子, 柴胡	荊防敗毒散, 荊防導赤散 荊防瀉白散, 滑石苦蔘湯 豬 車前子湯, 荊防地黃湯, 木通大安湯,
	利 水	豬 瀉, 澤瀉, 茯苓, 車前子, 木通,	
	祛 痰	前胡, 瓜蒌仁,	
	清熱解毒	黃柏, 黃連, 苦蔘, 玄蔘, 金銀花,	
清裏熱藥		石膏, 生地黃, 連翹, 知母, 梔子, 薄荷, 忍冬藤	涼膈散火湯, 地黃白虎湯, 陽毒白虎湯, 忍冬藤地骨皮湯
補陰藥		熟地黃, 山茱萸, 枸杞子, 覆盆子	獨活地黃湯, 十二味地黃湯
기 타		輕粉, 朱砂, 甘遂, 滑石, 牡丹皮, 地骨皮	朱砂益元散, 甘遂天一丸
계		35種	

77. 개개 藥物의 主治 效能과 완벽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그것은 대체로 四象處方의 表裏病證 精神에 부합되도록 재배치했음을 밝혀둔다.

78. 康秉秀, 高雲彩의 11人: 本草學, 서울, 永林社, pp.7-16, 1991.

79. 洪淳用, 李乙浩: 前掲書, pp.303-304.

表 5. 少陽人藥物の 本草學的分類 및 『東武遺稿』內容整理⁸⁰⁾

	少陽人藥材	本草學의 分類	『東武遺稿』
降表陰藥 (解表)	羌活	解表藥(發散風寒藥)	解腎氣之表邪羌活優力
	獨活	祛風濕藥(祛風濕止痛藥)	
	荊芥	解表藥(發散風寒藥)	
	防風	解表藥(發散風寒藥)	解腎之表邪
	牛蒡子	解表藥(發散風熱藥)	
	柴胡	解表藥(發散風熱藥)	
降表陰藥 (利水)	茯苓	利水滲濕藥(利水退腫藥)	固腎立腎
	澤瀉	利水滲濕藥(利水退腫藥)	壯腎而有外攘之力
	木通	利水滲濕藥(利尿通淋藥)	壯腎而有充足內外之力
	車前子	利水滲濕藥(利尿通淋藥)	
	豬苓	利水滲濕藥(利水退腫藥)	滌腎之穢氣
降表陰藥 (祛痰)	前胡	化痰止咳平喘藥(清化熱痰)	
	瓜蒌仁	化痰止咳平喘藥(清化熱痰)	
降表陰藥 (清熱解毒)	黃連	清熱藥(清熱燥濕藥)	醒腎之眞氣
	黃柏	清熱藥(清熱燥濕藥)	壯斂腎元
	苦參	清熱藥(清熱燥濕藥)	豁腎痰
	玄參	清熱藥(清熱涼血藥)	
	金銀花	清熱藥(清熱解毒藥)	
清裏熱藥	石膏	清熱藥(清熱瀉火藥)	爲腎元師之藥能驅逐腎元氣弱而不能除外熱熱氣侮腎周一迴凌浸於胃之四圍府
	知母	清熱藥(清熱瀉火藥)	壯腎而有內守之力
	生地黃	清熱藥(清熱涼血藥)	開腎之胃氣而消食進食
	梔子	清熱藥(清熱瀉火藥)	醒腎之眞氣
	連翹	清熱藥(清熱解毒藥)	
	薄荷	解表藥(發散風熱藥)	
	忍冬藤	清熱藥(清熱解毒藥)	
補陰藥	熟地黃	補益藥(補血藥)	補腎和腎
	山茱萸	止遺藥(遺精縮尿止帶藥)	健腎直腎
	覆盆子	止遺藥(遺精縮尿止帶藥)	
	枸杞子	補益藥(補陰藥)	

80. /表4/의 分類중에서 기타에 해당하는 藥物은 제외하였음.

表 6. 少陽人病證의 輕重變化에 따른 新定處方中 代表的 藥物群⁸¹⁾

病證分類			少陽人新定處方	降表陰藥	補陰藥	清裏熱藥
表病證	少陽傷風證	太陽病, 少陽傷風, 結胸, 身熱頭痛, 泄瀉亡陰, 身寒腹痛, 泄瀉亡陰	荊防敗毒散	荊芥 防風羌活 獨活	無	無
			荊防導赤散	上同	無	無
			荊防瀉白散	上同	無	石膏 知母
	亡陰證		猪 車前子湯	上同	無	石膏 知母
			滑石苦麥湯	上同	無	無
			荊防地黃湯	上同	熟地黃 山茱萸	無
			熟地黃苦麥湯	無	熟地黃 山茱萸	知母
裏病證	胸膈熱證	裏熱便閉, 上消, 中消, 陰虛午熱	陽毒白虎湯	荊芥 防風	無	石膏 知母
			地黃白虎湯	獨活 防風	無	石膏 知母
			涼膈散火湯	荊芥 防風	無	石膏 知母
	陰虛午熱證		忍冬藤地骨皮湯	荊芥 防風	山茱萸	知母
			熟地黃苦麥湯	無	熟地黃 山茱萸	知母
			獨活地黃湯	獨活 防風	熟地黃 山茱萸	無
			十二味地黃湯	荊芥 防風	熟地黃 山茱萸	無

* 表 6에서 少陽人 新定處方 17개중 木通大安湯, 黃連清腸湯, 甘遂天一丸, 朱砂益元散은 病證 輕重의 정도를 定하기가 어려우 제외하였음.

補陰之劑가 主가 되고 降表陰之劑는 部分적으로 使用되거나 使用되지 않았고 清裏熱之劑는 熟地黃苦麥湯에서 知母만 使用되고 獨活地黃湯과 十二味地黃湯에서는 使用되지 않았다.

IV. 總括 및 考察

東武 李濟馬는 '四象'을 『周易』에서 말하는 것처럼 太極에서 八卦로 分化하기 前段階 정도로 생각

하지 않았고, '事心身物'이라 하여 '더 이상 分化하지 않는 實體'로서 인식하였다. 이러한 概念을 바탕으로하여 '太極'인 '心'과 '兩儀'인 '心身'이 內面에서 뒷받침하여 '四象'인 '事心身物'이 겉으로 들어난다는 그 자신만의 獨創的인 本體論을 正립하였고, 이러한 '太極-兩儀-四象'의 精神은 氣裏形表의 精神으로 이어져, 四象醫學이라는 새로운 體質病證과 藥理精神을 가진 醫學體系를 形成하는 哲學의 바탕이 되었다⁸²⁾.

그러나 李濟馬는 그의 醫學을 原理의 추구에만

81. 降表陰藥物群과 清裏熱藥物群, 補陰藥物群에 있어서 대표로 선택된 藥材는 降表陰之劑로 荊芥, 防風, 羌活, 獨活과 清裏熱之劑로 石膏, 知母, 補陰之劑로 熟地黃, 山茱萸이다.

82. 宋一炳: 四象人 體質證과 體質病證의 成立過程에 관한 研究, 사상학회지 6(1): 71-73, 1994.

만족하지 않고 역대 醫家들의 醫學的 體驗속에서 歸納的으로 體質病證藥理를 發掘하여 體質病證을 說明하려 하였는데, 이는 醫學的原理과 體驗的事實 사이의 거리를 좁혀 四象醫學을 보다 實證的인 醫學으로 만들려는 勞力으로 볼 수 있다. 四象處方은 이처럼 四象醫學을 實證的 醫學으로 만들려고 한 李濟馬의 努力中에서 形成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四象處方の 이해는 올바른 四象哲學的 原理의 認識과 역대 醫家들의 體驗的 事實들을 이해 함으로써 可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까지도 四象醫學의 病證藥理와 處方을 既存의 證治 醫學的 사고로 解釋하는 경향도 많았던 것이 사실이며, 앞으로 四象醫學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四象醫學的 體系에 대한 올바른 認識의 토대 위에서 研究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四象醫學은 결국 疾病을 治療하기 위한 實證的 醫學이라는 관점으로 볼 때, 治療의 직접적인 수단인 四象處方을 이해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있는 일이며, 또 그 形成過程에 대한 理解는 四象醫學의 體質病證藥理의 이해와 나아가 四象醫學의 治療精神을 根本的으로 이해하는 하나의 方法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에 著者는 四象處方の 形成過程에 대하여 살펴 보기 위해 우선 少陽人의 新定處方 形成過程에 대한 考察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關聯資料가 너무 稀少하였고, 특히 四象處方에 관한 論文은 통틀어서 너편이 있을 뿐이었다. 그 중 趙⁸³⁾는 藥物 하나하나를 『東武遺稿』에 근거하여 '事心身物'의 개념으로 정리하고 모든 四象處方이 事心身物 構造로 形成되었다고 說明하고 있다. 四象哲學에서는 모든

것을 四象으로 구분하였기 때문에 四象處方 또한 이러한 原理로 分析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李濟馬가 四象處方을 만들 때 과연 이처럼 개개 藥物까지도 '事心身物'의 概念에 입각하여 정리하고 處方을 구성하였는가는 疑問이다.

四象體質은 太陰人·太陽人·少陰人·少陽人의 네가지로, 이들은 각기 다른 臟腑大小의 차이를 가지고 태어나며 이러한 臟腑大小의 차이 때문에 각 體質만의 독특한 病證을 갖게 된다. 少陽人은 脾大腎小라는 臟腑特徵을 가지고 있고, 이로 인하여 少陽人만의 특유한 病證을 形成하게 되는데, 이를 크게 脾受寒表寒病(表病證)과 胃受熱裏熱病(裏病證)으로 나눌 수 있다. 表 1에서 보듯 表病證은 다시 少陽傷風證과 亡陰證으로 구분되고, 裏病證은 胸膈熱證과 陰虛午熱證으로 구분된다⁸⁴⁾. 著者는 處方構成의 흐름을 살피기 위해 이를 좀 더 세분하였는데, 表2와 같이 表病證中 少陽傷風證은 太陽病·少陽傷風·結胸으로 亡陰證은 身熱頭痛泄瀉亡陰과 身寒腹痛泄瀉亡陰으로 나누었고, 裏病證中 胸膈熱證은 裏熱便閉·上消·中消로 陰虛午熱證은 下消와 陰虛午熱로 구분하였다.

表病人 脾受寒表寒病은 少陽人이 脾大腎小하므로 脾陰이 不降하여 背脊之間에 鬱滯되기 쉬운데 이때 外感에 觸感되어서 생기는 것이며, 裏病人 胃受熱裏熱病은 脾大하여 脾胃의 火熱이 旺盛하고 大腸의 清陽上升이 잘 안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⁸⁵⁾. 이러한 少陽人의 病證은 한마디로 火, 熱의 病證으로 변화가 빨라 急治해야하는 것으로, 表病은 脾大해서 야기되는 문제를 表陰降氣하여 治하고 裏病은 腎小에서 나타나는 문제로 清陽上昇하는

83. 조황성 : 前掲書, pp. 21-44.

84. 高炳熙 : 前掲書, pp. 30-35.

85. 高炳熙 : 上掲書, pp. 30-35.

方法으로 治하게 된다⁸⁶⁾. 좀더 자세히 말하면 表病 證인 脾受寒表寒病의 治療方法은 '清裏熱而降表陰' 하는 것으로 證治醫學에서의 散表鬱·清熱·清火·利水·祛痰·補陰등의 治法을 包括하는 概念으로 생각 할 수 있다. 또한 裏病證인 胃受熱裏熱病의 治療法은 清陽을 上升시키는데 그 目的을 두고 있으며 이 에는 證治醫學의 清熱·涼膈·清熱瀉火 등의 方法과 補精·補陰하므로써 除虛熱하는 方法 등의 두가지 概念을 包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李濟馬는 이처럼 少陽人의 病證과 이에 대한 治療法을 먼저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하여 새로운 少陽人 處方들을 만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구체 적으로 말하면, 少陽人 病證의 原理와 治療方法을 설정하고 이를 說明할 수 있는 病證의 經驗例를 前時代의 病證藥理의 經驗에서 찾았고 그 後에 少陽人 病證을 해결하기 위하여 가장 합당한 處方을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傷寒論』과 元明時代 處方 등 에서 찾은 것으로 보인다. 李濟馬가 少陽人 新定處方을 만드는데 있어서 대부분 『傷寒論』과 元明時代 醫家들의 醫書에서 病證과 處方을 引用하였으며, 이들 病證과 處方들이 少陽人 病證原理와 治療法에 입각하여 선택된 것임은 『傷寒論』에 있는 少陽人 經驗設方의 病理的 特徵과 少陽人 表裏病證原理와 의 비교에서 立證할 수 있었다. 이러한 過程을 거 쳐 찾은 處方들을 李濟馬는 '少陽人病證의 經驗設方'이라하여 少陽人篇의 末尾에 수록하여 놓은 것 으로 짐작할 수 있으며, 『傷寒論』의 少陽人病證 經驗設方은 處方 자체보다는 少陽人 病證原理를 구축 하는데 필요한 '病證藥理'의 引用에 主目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元明時代의 經驗設方은 주로 新

定處方을 形成하는데 基本 모델이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處方들은 少陽人의 病證에 바로 適用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었고, 따라서 많은 變化를 거쳐 새로운 少陽人 處方 17種이 만들어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過程들을 要約하여 整理 해보면 다음表와 같다(表 7).

이러한 少陽人 新定處方的 形成過程中에는 몇가

表 7. 少陽人 新定處方 形成過程 要約⁸⁷⁾

少陽人新定處方	形成過程要約
荊防敗毒散	荊防敗毒散(古今醫鑑)-(枳殼, 桔梗, 川芎, 人參, 甘草)+(生地黃, 地骨皮, 車前子)
荊防瀉白散	猪 車前子湯-(猪 車前子)+(生地黃)
荊防導赤散	導赤湯(萬病回春)-(枳殼, 白朮, 甘草)+(玄麥, 瓜蒌仁, 前胡, 羌活, 獨活, 荊芥, 防風)
猪 車前子湯	①猪 湯(傷寒論)-(滑石, 阿膠)+(車前子, 石薺, 知母, 羌活, 獨活, 荊芥, 防風) ②荊防瀉白散-(生地黃)+(猪 車前子)
荊防地黃湯	六味地黃湯(和劑局方)-(山藥, 牡丹皮)+(車前子, 荊芥, 防風, 羌活, 獨活)
滑石苦麥湯	
熟地黃苦麥湯	六味地黃湯-(山藥, 牡丹皮)+(知母, 黃芩, 苦麥)
涼膈散火湯	涼膈散(和劑局方)-(大黃, 芒硝, 甘草, 黃芩)+(生地黃, 忍冬藤, 石膏, 知母, 荊芥, 防風)
忍冬藤地骨皮湯	
地黃白虎湯	白虎湯(傷寒論)-(甘草, 粳米)+(生地黃, 獨活, 防風)
陽毒白虎湯	①白虎湯-(甘草, 粳米)+(荊芥, 防風, 牛蒡子)

86. 高炳熙: 上揭書 p. 33.

87. 表 7의 內容中 滑石苦麥湯과 忍冬藤地骨皮湯은 處方內容이 獨創的이어서 既存處方과의 聯關性을 찾을 수 없어 제외 하였고, 黃連清腸湯, 木通大安湯, 荊防瀉白散은 다른 新定處方과 內容이 비슷하여 이를 토대로 整理하였다.

陽毒白虎湯	②地黃白虎湯-(獨活)+(荊芥, 牛蒡子)
獨活地黃湯	六味地黃湯-(山藥)+(獨活, 防風)
十二味地黃湯	六味地黃湯-(山藥)+(地骨皮, 玄麥, 枸杞子, 覆盆子, 車前子, 荊芥, 防風)
黃連清腸湯	木通大安湯-(荊芥)+(猪)
木通大安湯	黃連清腸湯-(猪)+(荊芥)
甘遂天一丸	甘遂(大陷胸湯, 十棗湯)+(輕粉)
朱砂益元散	益元散-(甘草)+朱砂, 澤瀉, 甘遂

지 類型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既存處方에서 體質에 위배되는 藥材만 뺀 후 거기에 少陽人 藥材를 加하여 만든 경우로 荊防敗毒散·獨活地黃湯·十二味地黃湯·地黃白虎湯·涼膈散火湯이 있다.

둘째, 既存處方에서 體質에 위배되는 藥材와 體質에는 맞으나 病證에 위배되는 藥材까지 뺀 후 새로운 少陽人藥材를 加하여 處方으로 만든 경우로 猪 車前子湯·荊防地黃湯·熟地黃苦麥湯·荊防導赤散·黃連清腸湯이 있다.

셋째, 既存의 두 處方에서 非少陽人藥을 빼고 이를 合하여 만든 處方으로 陽毒白虎湯이 있다.

넷째, 既存處方の 이름만 빌린 후 그 處方の 趣旨에 입각하여 少陽人 藥材들로서 만든 處方으로 荊防瀉白散이 있다.

다섯째, 既存處方에서 대표적인 藥材만 취한 후 既存處方の 취지에 맞는 少陽人 藥材를 加하여 만든 處方으로 甘遂天一丸, 朱砂益元散이 있다. 마지막으로, 토대가 되는 處方없이 處方名이나 構成藥材가 獨創적인 경우로 木通大安湯·滑石苦麥湯·忍冬藤地骨皮湯이 있다.

이처럼 處方形成에 있어서 多様な 類型들을 볼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變化들은 결국 既存處方으로부터 少陽人의 表裏病證에 가장 적합한 處方을 만드는 過程에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少陽人 新定處方に 使用된 藥物은 총 35種으로 表病證에만 使用된 藥物은 木通·前胡·猪·滑石·甘遂·輕粉 등이 있고, 表裏證에 兼用하는 藥物은 獨活·荊芥·防風·生地黃·茯苓·澤瀉·知母·石膏·玄麥·山茱萸·熟地黃·牡丹皮 등이 있으며, 裏病에만 使用된 藥物은 枸杞子·覆盆子·梔子·忍冬藤·薄荷 등이다⁸⁸⁾. 이는 다시 病證의 治法에 따라 크게 降表陰利水之劑와 清裏熱之劑, 補陰之劑로 나눌 수 있는데 降表陰藥物에 荊芥·防風·羌活·獨活·牛蒡子·柴胡·猪·澤瀉·茯苓·車前子·木通·前胡·瓜蒌仁·黃芩·黃連·苦麥·玄麥·金銀花 등으로, 清裏熱藥物에는 石膏·生地黃·連翹·知母·梔子·薄荷 등으로, 補陰藥에는 熟地黃·山茱萸·枸杞子·覆盆子 등으로 區分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處方形成의 原理를 더욱 입체적으로 分析하기 위하여 著者は 少陽人 病證이 輕證에서 重證으로 變化할 때 少陽人 新定處方들은 어떠한 原則을 가지고 變化하는가를 살펴보았다.

少陽人 病證은 少陽人의 保命之主인 陰清之氣의 부족 정도에 따라 輕重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러한 輕重의 차이가 處方の 構成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少陽人 藥物을 크게 降表陰藥物, 清裏熱藥物, 補陰藥物로 나눈 것에서 대표적인 藥物로 降表陰藥物에는 荊芥·防風·羌活·獨活 등을, 清裏熱藥物에는 石膏·知母 등을, 補陰藥物에는 熟地黃·山茱萸 등을 설정해보았다. 少陽人 處方은 表病證에 있어서는 荊防敗毒散·荊防導赤散·荊防瀉白散에서 猪 車前子湯·滑石苦麥湯·荊防

88. 鄭鳳然 高柄熙 宋一炳: 四象醫家에서 분류한 各 體質藥物에 관한 文獻考察, 사상의학회지 7(1) : 175, 1995.

地黃湯·熟地黃苦蔘湯으로 갈수록 重證으로 進行한다고 볼 수 있으며, 裏病證에서는 陽毒白虎湯·地黃白虎湯에서 涼膈散火湯·忍冬藤地骨皮湯·熟地黃苦蔘湯·獨活地黃湯·十二味地黃湯으로 갈수록 重證으로 進行한다고 말할 수 있는데, 表 6에서와 같이 輕證에서 重證으로 進行할 때 세가지 藥物群의 代表性인 藥材들의 頻度を 조사해 본 결과 다음과 같았다.

즉, 表病證에 있어서는 熟地黃苦蔘湯을 제외하고는 모두 降表陰之劑를 使用하고 있을 만큼 降表陰利水에 置重하고 있으며(엄밀한 意味에서 熟地黃苦蔘湯은 裏病證藥으로 볼 수 있음), 亡陰證 處方으로 表病證에서 가장 重證에 該當하는 荊防地黃湯과 熟地黃苦蔘湯에 이르러서는 補陰之劑가 使用되기 시작하는 흐름을 形成하고 있다. 한편, 裏病證 輕證에 있어서는, 表病證에서는 별로 중요시 되지 않던 清裏熱之劑가 處方의 主 흐름을 形成하고 있으며 거기에 降表陰藥物은 부분적으로 使用되고 있다. 裏病證이 重證으로 進行하면서 清熱之劑의 使用은 줄어들면서 결국 熟地黃苦蔘湯과 獨活地黃湯, 十二味地黃湯에 이르러서는 熟地黃 山茱萸의 補陰之劑가 主가 되고 降表陰之劑는 부분적으로 使用되거나 使用되지 않았으며, 清裏熱之劑는 熟地黃苦蔘湯에서 知母만 使用되고 獨活地黃湯과 十二味地黃湯에서는 使用되지 않았다. 이를 요약하면, 첫째, 表病證處方은 處方전반에 있어서 降表陰하는 藥物이 主가 되고 重證으로 가면서 補陰하는 藥物이 使用되기 시작하며, 둘째, 裏病證處方은 清裏熱藥物이 主가 되고 降表陰藥物이 부분적으로 使用되다가 重證인 陰虛午熱證에 이르러서는 補陰하는 藥物이 主가되고 降表陰藥物은 부분적으로 使用되고 있다. 셋째로 表裏病證 모두 重證에 이르면 결국 손상된 '陰清之氣'를 직접적으로 보충해주는 補陰藥物이 處方구성에 主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少陽人 病證이 重證으로 갈수록 處方構成 또한 少陽人 '保命之主'인 '陰清之氣'를 補強하는 쪽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少陽人 17種 新定處方의 대부분은 李濟馬가 病證의 概念과 治療原則을 設定한 後에 이러한 概念을 잘 說明하고 있는 少陽人 病證의 經驗例를 『傷寒論』과 元明時代의 醫家들의 書籍에서 찾아 그 病證과 處方을 토대로하여 病證의 治法에 알맞은 形態로 變形시켰으며, 이들 處方들은 모두 輕證에서 重證으로 갈수록 少陽人의 保命之主(正氣)인 陰清之氣를 補強하는 쪽으로 置重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李濟馬의 藥劑使用은 藥劑 하나하나의 藥性を 重要視하기보다는 類似效能을 가지는 藥物들을 함께 使用하고 있어서 같은 病證의 處方들은 서로 매우 비슷한 處方構成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점에서 '君臣佐使'를 基本 方劑原理로 이용하는 既存의 方劑精神과는 매우 다른 獨創性을 가지는 것으로 말할 수 있다.

以上에서 少陽人 新定處方의 形成過程과 그 原理에 대해 考察해 보았으나 향후 少陽人處方뿐 아니라 기타 體質의 處方에 관해서도 많은 研究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研究를 바탕으로 四象處方의 形成過程 및 形成原理, 方劑精神에 대한 理論定立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V. 結 論

少陽人 17種 新定處方의 形成過程 및 形成原理에 대한 考察을 통하여 四象處方의 方劑精神을 類推해 보고자 『東醫壽世保元』 少陽人篇을 중심으로하여 『傷寒論』 및 元明時代 少陽人病證 經驗設方의 내용에 대해 病證原理 및 處方內容上 相互間의 關聯性

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李濟馬는 少陽人 病證과 原理를 設定하였고, 表病證은 清裏熱而降表陰하며 裏病證은 清陽上升하는 治療方法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少陽人 處方形成에 있어서 基本方向이 되었다.

2. 少陽人 病證의 經驗設方으로는 『傷寒論』處方 10種과 元明時代 處方 9種이 『東醫壽世保元』에 記載되어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少陽人 新定處方形成에 있어서 基本 토대가 되었다.

3. 『傷寒論』의 少陽人 病證 經驗設方은 處方 자체보다는 少陽人 病證原理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病證藥理'의 引用에 主目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元明時代의 經驗設方은 주로 新定處方을 形成하는데 基本 모델이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4. 少陽人 新定處方이 既存處方에서 形成되는 過程에는 다음과 같이 몇가지 類型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1) 既存處方에서 體質에 부적합한 藥材만 빼고 少陽人 藥材를 加하거나, 體質에는 맞으나 病證에 부적합한 藥材까지 빼고 새로운 少陽人 藥材를 加味한 경우.
- 2) 既存의 두 處方을 合方하고 體質에 부적합한 藥材를 뺀 경우.
- 3) 既存 處方の 이름만 빌리거나 대표적 藥材만 取한 후 病證原理에 맞게 立方한 경우.
- 4) 處方名이나 內容이 완전히 獨創적인 경우.

5. 少陽人 新定處方에 使用된 藥物은 총 35種이며, 이들은 病證 治療方法에 따라 降表陰하는 藥物群, 清裏熱하는 藥物群, 補陰하는 藥物群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6. 少陽人 病證의 輕重에 따른 處方內容의 變化에 있어서 表裏病證 모두 重證에 이르면 결국 損傷된 陰清之氣(少陽人 保命之主)를 직접적으로 補充

해주는 補陰藥物이 處方構成의 主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7. 少陽人 新定處方은 藥劑 하나하나의 藥性을 중요시하기보다는 類似效能을 가지는 藥物들을 함께 使用하고 있어서 같은 病證의 處方들은 서로 비슷한 構成內容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점에서 '君臣佐使'를 基本 方劑原理로 이용하는 既存의 方劑精神과는 매우 다른 獨創性을 보인다.

8. 以上の 結果를 통해 四象處方의 形成過程 全體를 類推해보면, 李濟馬는 病證의 概念과 治療原則을 먼저 設定한 後에 이러한 概念을 잘 說明하고 있는 病證의 經驗例를 前時代 醫家들의 書籍에서 찾고, 그 病證과 處方을 토대로하여 體質別 藥物의 加減에 따라 가장 알맞은 形態로 處方을 構成하였으며, 이들 處方들은 모두 輕證에서 重證으로 갈수록 體質別 保命之主를 補強함으로써 臟腑大小에서 야기되는 不均衡을 解決하는데 主眼點을 둔 것으로 생각된다.

以上の 結果로 보아 少陽人 新定處方은 李濟馬의 獨創적인 病證藥理精神과 前時代 醫家들의 實證적인 經驗이 결합되어 形成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향후 기타 體質의 處方에 있어서도 많은 研究가 필요할 것으로 思料되며, 本 論文이 四象處方 研究에 있어서 하나의 資料로 이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參 考 文 獻

1. 康秉秀, 高雲彩의 11人: 本草學, 서울, 永林社, 1991.
2. 申載鏞: 方藥合編解說, 서울, 成輔社, 1989.
3. 虞博: 醫學正傳, 서울, 成輔社, 1986.
4. 尹完重: 懸吐祥校東醫壽世保元, 서울.

5. 朱震亨：新編丹溪心法附餘，서울，大星文化社，1993.
6. 蔡仁植：金 要略精解，大邱，東洋綜合通信教育院出版社，1986.
7. 蔡仁植：傷寒論譯註，서울，高文社，1991.
8. 許浚：東醫寶鑑，서울，南山堂，1994.
9. 洪淳用，李乙浩：四象醫學原論，서울，행림출판，1992.
10. 洪元植：中國醫學大系9卷中 太平惠民和劑局方，서울，도서출판정담.
11. 信：古今醫鑑，江西，江西科學技術出版社，1990.
12. 信：萬病回春，台北，大中國圖書公社，1974.
13. 楊宏仁：金 要略重編，台南，世一書局，1983.
14. 李克光：金 要略，北京，人民衛生出版社，1989.
15. 高炳熙：少陰人 少陽人病證論의 概要，서울，月刊韓方系 6월호，1991.
16. 金東植：東醫壽世保元에서의 舊，新方에 關한 探究，서울，사상의학 회지 7(1)，1995.
17. 金振榮：『東醫壽世保元』方名論，사상의학회지 7(2)，1995.
18. 宋一炳：四象人 體質證과 體質病證의 成立過程에 關한 研究，사상의학회지 6(1)，1994.
19. 鄭鳳然 高炳熙 宋一炳：四象醫家에서 分類한 各 體質藥物에 關한 文獻考察，사상의학회지 7(1)，1995.
20. 조황성：四象方劑構成의 分析研究，四象醫學會誌，7(2)，1995.